



##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6.15통일산악회의 2010년 첫 산행이 있었습니다. 30여명이 북한산 등정에 함께하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2010년 6.15한마음통일산악회 선언을(21쪽참조) 발표했습니다.

### · 목 · 차 ·

새해 인사 김호현 • 2 / 논평 권오현 • 3 / 홀소장기수를 찾아서 • 양원진 선생님 유영호 • 8 / 감옥에서 온 편지 • 12 / 회원미당 • 산행기 모성용 • 19 / 6.15한마음통일산악회 선언 • 21 / 의견 • 아프간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 • 22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명단 • 24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6 / 재정 보고 • 39 / 화비를내주신 분들 • 40

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u.or.kr](http://www.yangsimu.or.kr) 이-메일 : [yangsimu0@gmail.net](mailto:yangsimu0@gmail.net)

## 희망과 결기를 모아 새해 인사 올립니다.

김호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신념과 양심의 화신이신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과 양심수 당사자이신 양심수여러분에게 2010년 경인년 새해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절망과 분노의 2009년을 역사의 기록 속에만 묻어놓지 않고 우리의 가슴과 행동의 결기를 모아 힘차게 20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기의 정권에 의한 용산참사는 인간과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폭압적 독재 권력에 의하여 어떻게 처참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 교훈이었다고 봅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공권력이란 미명과 폭압적인 물리력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 쌍용자동차 사태 및 조국통일운동 선상에서 당당한 범민련 동지들의 무자비한 감청과 압수수색 등으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격과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들만의 언어 유희인지를 작금의 많은 사건의 무죄 과정에서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독재자들은 항상 법치와 국민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더럽고 구린 치부를 막기 위하여 총칼과 탄압을 동원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무자비한 MB정권 또한 그 어느 때의 정권보다도 교묘하고 악랄하게 공권력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진보진영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거스를 수 있다는 무지와 오만의 결과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후손들에게 역사의 채무로 남게 하는지를 오직 그들만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안창호선생의 말이 귓전을 때립니다.

지난한 시간 동안 어둠과 그늘 속에서도 잔잔하게 한걸음으로 지원과 행동을 같이 해준 양심수후원회 회원 여러분!! 신념과 양심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양심수 여러분 !!

權不10년, 花無十日紅이라 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덩실덩실 어깨춤 함께할 그날이 봄날의 새싹처럼 저기서 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2010년 우리 다시 함께 머리끈 동여 메고 어깨춤 추러 같이 갑시다.

우리 모두 강건하시길 기원합니다.

# 반북대결정책, 더 이상 용인 될 수 없다

- 시대의 요구를 읽지 못하는 통일부의 반통일 전략 -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2009년 12월31일, 세모의 여의도 국회 앞은 칼바람이 매서웠다.

그런데 비싼 석유로 난방된 의사당 안에서는 다수의 횡포로 정국을 얼어붙게 했다.

주권자의 뜻을 무참하게 깔아뭉개는 집권자의 오만과 독선이었다. 공무원봉급을 볼모로 하는 ‘준예산’ 협박에 민의의 전당은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정부와 여당의 폭주장이 되었다.

새해 예산안이 예결의 ‘날치기’와 본회의 ‘강행처리’ 되었으며 직권상정 안팎이라고 연막을 쳤던 입법부 수장이 한 정파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법개악안을 전격 상정 변칙 처리했다.

‘4대강 예산저지, 민생예산확대, 노동탄압중단, 72시간 비상국민행동’은 끝내 뒤흔들기를 맞았고 야당의 원들의 고함소리는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 같은 세모의 여의도 난동은 이명박정부 2년의 민생외면, 노동탄압, 민주주의 말살,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일방적 밀어붙이기의 한 단면이었을 뿐이었다.

2010년이 밝아왔다.

해가 바뀐다는 것은 묵은해의 모든 것과 단절이 아니다. 따라서 여의도의 폐악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민생 반민주 반통일 악령을 몰아내고 철저히 심판하는 새해로 맞아야 할 것이다. 흠어졌거나 느슨했던 대열을 재정비하고 작은 차이를 줄여 민중의 생존권보장 민주주의회복 남북관계개선에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여러 과제들 가운데 뽕뽕 얼어붙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과 통일부의 대북 관련 3대전략 목표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올해 2010년은 경술국치 100년이면서 분단 65년, 동족상잔 60년, 6.15공동선언 10년이 되고 있다. 나라를 강탈당했던 기간보다 더 오랜 분단시대를 살아왔다. 조국광복의 감격도 잠시였고 새로운 외세간섭과 분단강요는 동족상잔이란 비극마저 겪어야 했다. 휴전협정 57년이 되고 있지만 종전과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이 미루어지고 있으며 65년의 미군강점이란 오욕의 역사도 이어지고 있다. 군사주권이 점령군 손아귀에 쥐어진 채 동족을 겨냥한 한미합동전쟁연습도 멈추지 않고 있다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은 모든 식민지배체제 기구인물 등 그 잔재를 청산하고 더 이상 외세의 지배 간섭 없는 민족자주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이 분열되었으며 외세 강점과 군사주권 등 자주권을 잃고 있다. 따라서 나라강탈 이후의 민족해방투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슬기로웠다. 2차대전 이후 강대국의 패권적 세계전략은 동, 서 냉전체제로 구체화되

었다. 그리고 그 냉전의 파편 세례를 토크로 당했던 우리민족은 1990년 4대 전승국이 대독일화해조약조인으로 사실상 냉전체제가 막을 내리기 훨씬 전에 외세간 섭없는 자주통일의 원칙을 세웠고 이를 계속 강화발전시켜왔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천명한 7.4남북공동성명(1972.7.4)을 남북의 고위급 당국자가 합의했고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하는 등 남북기본합의서(1992.2.19)를 발효시켰다. 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에서는 사상과 이념, 체제와 제도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남북 최고수뇌의 역사적 만남과 6.15남북공동선언(2000.6.15)을 합의 서명했다. 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인 10.4평화번영선언(2007.10.4)을 합의 서명했다. 군사적 적대관계종식, 평화체제구축,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과 국제무대에서의 민족의 존엄과 이익에 협력 그리고 장관급 회담을 총리급으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부총리 급으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초헌법적 합의는 자주와 통일로의 온 거래의 염원과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그 누구도 막아서지 못할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이었다.

이 같은 역사적 합의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

6.15공동선언이후 이명박정부 들어 모든 당국자 대화가 단절되기 전까지 141회에 걸친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회담, 45회에 걸친 국방장관과 장성급회담이 있었고 16회에 걸쳐 18,000여명의 이산가족상봉과 생사확인을 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만 34만 8000여명을 비롯하여 연 인원 190여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다. 금강산 개성관광 말고도 한 해 15만 명이 넘게 남북으로 오가며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을 했다. 남북사이의 교역액도 한

해 17억~18억 달러에 이르렀다. 휴전선 바로 넘어 군사적 요충지에 개성공단을 열어 2008년 현재 93개 기업이 입주하여 북측 근로자 3만89,000여명과 남측 근로자가 함께 2억 5,142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여 3,584만 달러 상당을 수출했다. 특히 10.4선언 이후에만 제1차 남북총리급회담(2007.11.14~15서울), 남북국방장회담(11.27~6평양), 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12.4~6 서울) 등 남북 사이 각종 회담과 실무접촉 현지조사 등 36차례가 이루어 졌으며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구축,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등 수많은 교류협력사업의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처럼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되며 자주통일의 탄탄대로를 닦고 있었다. 그래서 온 거래가 감격하고 환영했으며 온 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냈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이 같은 역사적 선언과 그 이행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퍼주기’ 이고 ‘끌러가기’ 라고 폄하 모독했다. 통일부를 아예 없애려 했다. 겨우 살아남은 통일부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핵을 이고는 통일도 경제협력도 하기 어렵다. 통일부는 이제까지의 (남북)협상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고 했다. 이어 ‘기다리는 것도 전략(08.11.12),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목표(08.11.16) ‘ 등 가당치도 않은 흡수 통일 속셈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게 있어 대북정책은 이른바 ‘비핵,개방3000구상’ 이 모두였다. 북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체제전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통일부장관은 입만 열면 선행폐기론을 말했고 합참내정자는 북핵시설 선제타격을 서슴없이 말했다. 6.15 10.4선언이 무시 외면되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사이 당국자 회담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금강산 개성관광이 끊기고 이산가족 상봉사업 문이 잠겼다.

남북으로 오가며 진행되었던 6.15 8.15 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회문화교류사업 심지어 인도적 지원사업마저 폐쇄일로 전에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방북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양건 아·태평화위 위원장과 합의한 공동보도문(8.17일) 내용을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만 진행했을 뿐 금강산 개성관광재개 등 모처럼 당국이 못한 합의를 외면한 사실이다. 북측은 약속대로 육로통행 및 체류원상회복, 판문역과 파주역사이의 화물열차운행, 남북경제협력사무소의 정상운영, 동·서해지구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등을 복원하고 현대아산근로자 유씨 귀환조치, 800연안호선원 귀환조치를 했지만 남측당국은 금강산관광재개 등에 대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또한 김대중 전대통령서거에 북측의 특사조의방문단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이명박대통령과 면담하면서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두메시지(청와대대표현)를 전달하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청와대대표현)며 남북관계개선의 적극성을 보였으나 그 후 남측의 태도는 역시 냉담하기만 했다. 얼마 뒤에 공식 확인되지 않은 언론과 정가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등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있었으나 정상회담 의제 때문에 결렬되었다고 했다. 남측에서 회담의제로 북핵, 국군포로, 남북자 송환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11.28일 밤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북한의 핵포기에 도움이 될 것인지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소위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를 서로 이야기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참으로 황당한 발언이었다. 과연 대통령이 남북관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이 정도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경술국치 이후의 식민지배·광복후 외세에 의한 분단과정-동족상잔과 냉전강요시대-7.4공동성명에서 10.4선언

까지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화해 협력 진행과정 등 민족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태도인지 무식한 탓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글에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대통령은 1월 4일 새해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상시적 대화기구'는 2008년 4월 <워싱턴포스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서울과 평양에 고위급연락사무소설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있는 국군용사들의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북관련 새해연설은 이제까지의 대결자세에 비하면 다음어진 말로 들린다. 우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 필요성을 말했고 '북핵폐기'에서 '한반도비핵화진전'으로 표현했으며 '상시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말했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등 대화의지를 표명했다. 당연히 열린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길 기대하고 싶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구체적 내용과 방법이 예시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반도비핵화'라는 완만한 표현을 하였지만 남북협력의 전제로 표현되고 있으며 6.15 10.4선언을 통한 수많은 대화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평양에 상시적대화기구를 말하면서 공동선언이행과 관련해서 아무 말이 없었다.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개설론'과 관련해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밝힌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사실을 망각한 구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후원회소식 200호 08.6월) 굳이 말꼬투리를 잡아 흠집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공동선언이행’ ‘장관급대화 재개’ ‘금강산관광재개’ 등 단 한 가지라도 넣어 구체적이고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했고 특히 남북관계개선과 핵문제와의 연계성을 과감히 벗어던졌어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청량리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이래적으로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통일, 외교안보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가 있었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각 부처 사무실이 아닌 국방연구원에서 받은 것 자체가 남북문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외교, 안보 범주에 묶어두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통일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2010년을 ‘북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는 시기’로 전망하고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겠다고 ‘2010년 3대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9대 중점추진과제를 밝혔다. 그러나 3대원칙부분과 9대 중점추진과제를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나 새로운 전기 마련과 방식은 보이지 않는다. 몇 가지 문제점을 보기로 한다.

첫째, 통일부는 여전히 ‘북핵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른바 ‘북핵문제’의 정확한 개념은 ‘한(조선)반도의 비핵화’ 문제이다. 9.19공동성명에서 분명히 했듯이 ‘북핵포기’만이 아니라 핵공격위협, 핵의 이동배치, 핵우산 제공중단등 한. 미당국의 이행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북핵’의 원인제공을 한 미국의 대북핵선제공격위협 등 적대정책의 전환이야말로 Corea반도 비핵화의 결정적 열쇠가 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북핵문제’를 관장하고 우선과제로 한 것은 반목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에 전념해야 할 통일부의 본분에 배치된다 할 것이다.

둘째, ‘국민의 신변안전보장’과 ‘투명한 교류협력추진’속에 숨겨진 인적, 물적 교류장벽이다. 통일부는

지난한해동안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방북을 불허한 건수가 27건이고 사실상 불허로 판단되는 ‘철회’ 건수가 484건으로 500건이 넘는다. 지난 두 정부 10년 동안 271건의 두 배이고 이명박정부 출범 첫째 110건의 5배에 이른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6.15남측위 대표단의 일부대표와 집행일꾼들의 북한주민 접촉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했다. 또한 이른바 전략물자 반출을 이유로 물품반출 제한을 강화하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 대가로 지불되는 돈이 핵무기 자금으로 전환된다 해서 현물제로 전환하고 인도적 쌀 지원이 군인들에 들어간다해서 옥수수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제공할겠다는 통일부였다. 이 같은 발상은 불신과 대결 자세에서 연유된다. 화해와 협력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 존중하며 남북사이의 합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 ‘생산적 인도주의실현’에서 선택과 집중을 말한다. 인도주의 지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질병예방과 긴급구호용물자에 한해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만 선별해 지원하고 그것도 단계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현행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에도 어긋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지원 \* 농업개발지원사업 \*보건위생 상태개선 및 영양결핍아동, 노약자 등 지원 사업 \* 산림복구 및 환경보건지원사업 등으로 되어있다. 현재 통일부는 어린이 의약품지원단체가 평양에 어린이 병원을 세워 의료기구등을 보내려했으나 사람과 물자 보내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결국 통일부가 선호하는 특정단체에게만 제한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쌀과 비료지원 등 이전 정부들이 실행해온 인도주의 지원사업은 이른바 국군포로, 남북자문제와 연계시키려하고 있다.

여기서 짚고 갈 문제로 이른바 국군포로, 남북자는 남북이 합의한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돈이나 물건으로 교환될 대상이 아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서 보았듯이 남측에서 말하는 국군포로. 납북자는 북에서 가정을 이루고 2세 3세로 살아오고 있는 북이 주장하는 북을 선호하여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 남측주장대로라면 1953년 6월18일 이승만대통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석방된 27,000여명의 인민군 포로들도 이남의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북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인민군포로 등 누구라도 가족을 만나고 더 나아가 재결합까지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북이 어떻게 불신과 대결자세를 버리고 화해협력하며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넷째, ‘미래준비 통일역량강화’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을 강조한 부분이다. 통일부는 대규모 전국순회 ‘통일대화광장’을 진행하고 한반도 미래협력대화(KFCD)를 창설 정례화하며 세계지도급 인사 및 석학이 참여하는 ‘통일비전글로벌 네트워크’를 분기별로 추진한다고 했다. 또한 독일통일20주년을 맞아 독일통일(과정)을 종합연구 한다고 했다. 전체를 보면 반공.반북교육강화이고 국제보수논객을 동원한 대북

고립압살정책을 연구하고 독일처럼 흡수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지난해만 해도 중·고교 통일교육을 실시하면서 극우, 보수인사들이 강사로 초빙되어 실시한바 있다. 통일문제 연구라면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 학자, 사회단체들이 모여 심사숙고할 일이다. 그리고 현재 구성되어있는 남북당국 사이 대화 창구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명박대통령의 새해 연설에서 밝힌 올해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과 관련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의제를 구상하고 있는지 염려된다.

의제가 문제이지 장소 등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의제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밝힌 북핵문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라면 남북관계돌파구 마련도 정상회담 자체도 성사되기 힘들 것이다. 2년 동안의 반복대결 정책을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미 합의한 6.15,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해야 하고 그보다도 더 진전된 남북관계발전구상이 요구된다.

2010. 1. 7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알립니다

## 2010년 2월 산행

일시 | 2010년 2월21일 일요일 9시 20분

장소 | 고대산(경기도 연천소재)

출발지 | 1호선 동두천 역 대합실

동두천에서 신탄리까지 가는 경원선 열차가 매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시간 엄수 바랍니다.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

회비 5,000원

(동두천에서 신탄리역까지 기차운임 포함)

## 소득공제영수증 발급해 드립니다

일괄 발송하지 않고 필요하신 회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보내드리오니 양해바라오며  
아래 전화로 직접 혹은 문자로 성명과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02-874-4063

임미영 010-7563-0559, 모성용 017-321-1800

## 우리 현대사의 압축, 양원진 선생님을 뵈고

유영호 | 회원

지난 12월, 양심수  
후원회 송년모임에  
서 김동수 선생님과  
함께 한 양원진  
선생님(사진 왼쪽)



2010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하례식이 열리는 날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원진 선생님을 만나 뵈었다. 하례식은 그날 오후 7시였고, 선생님과의 약속은 오후 3시인지라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 웬걸? 선생님께서는 그 동안 당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전해주시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다. 그리하여 2층 박희성 선생님의 작은 방에서 정좌한 채로 화장실도 못 가고 꼬박 4시간을 전해 듣고 이렇게 짧은 지면에 그것을 옮겨야 되니 이래 저래 참 곤혹스럽다...쩍쩍^^

이렇게 듣게 된 장기수 양원진 선생님의 인생사는 그야말로 험난했던 우리의 현대사를 응축해 놓은 듯하다.

### 중국에서 보낸 어린시절

선생님은 1929년 전남 신안군 지도면에서 누나 둘에 외동아들로 출생하셨다. 양 원진 선생님의 부친은 광주사범대를 졸업하시고 당시 그곳 시골에서 선생님을 하시고 계셨다고 한다. 하지만 부친께서는 어머니와 이별하고 가족을 남긴 채 일본으로 떠나셨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이 파탄 날 때 양원진 선생님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다고 하지만 자라면서 힘겨운 가족의 삶 속에서 아버지를 원망하였고 또 그 충격 속에서 아직도 자신의 삶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절대로 결혼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도 결혼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 갔던 아버지가 잠시 고향에 돌아와 사업상 북경으로 가는 때에 어머니는 아들 양원진을 공부시키려고 아버지와의 북경행을 적극 권하여 결국 14세 되던 1941년 부친과 함께 36시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열차를 타고 북경으로 떠난 것이다. 그곳에서 조선학생들만 모아 놓고 교육시켰던 <동성제2중학교>를 다녔다고 하신다.

하지만 당시는 중일전쟁 이후 북경도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처지라 선생님도 학생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3월 징용에 끌려가셨다고 한다. 다행히 곧 일제가 패망하여 징용기간은 6개월로 끝났지만 이처럼 그곳에서도 식민지 청년의 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북경은 민족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라 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중국에 가시기 전에 고향에서 소학교시절 사회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귀국할 때까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들어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신다. 그리고 어린 시절 ‘사회주의’라는 말은 ‘그 짓 했다 가는 가문이 망한다’는 식의 지식이 전부였다고 하신다. 그리고 일제가 패망한 뒤 북경에서 학생들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그 웅변에서 학생들은 미군은 해방군으로, 소련은 침략군으로 연설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원진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온통 우익적 환경 속에서 자라나셨다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웅변대회 후 학생들과 토론에서 선생님께서는 미군이건 소련군이건 모두가 외세이지 왜 주체적이지 못하냐고 논쟁을 하셨다고 하시니 나름 어린 시절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주체적 역사관이 투철하셨던 것 같다.

### 조국해방, 우익에서 좌익으로

해방이 되어 그 이듬해인 1946년 6월 북경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부친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조국의 땅을 그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고 하신다. 고향으로 돌아와 첫발을 디딘 이리역 광장에 <국부 리승만박사 환영>이란 현수막이었는데 북경이라는 우익적 환경 속에서 자라난 선생님께서도 그런 리승만에 대하여 그 앞에 ‘국부(國父)’라는 칭호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하신다. 그러시며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은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리승만이 도대체 무슨 독립운동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이신다. 뿐만 아니라 북경에는 온통 우익세력인데 고향에 돌아오니 95%이상이 좌익이었고, 자신보다 1년 앞서 귀국한 아버님께서도 이미 고향인 무안군(현재 신안군으로 분리) 인민위원장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 해 9월 목포 <문태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양원진 학생은 미군의 침략자적 행동에 그만 분노하고 만다. 당시는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못하여 상당 부분 쌀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고, 그리하여 학생들도 고향 집에서 쌀을 가져와 그것으로 하숙비 등을 대신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군은 학생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쌀들을 모두 빼앗은 것이다. 이에 양원진 학생은 분노하여 18세의 나이에 “쌀을 돌려달라”는 구호로 학생시위를 조직한 것이다. 이것이 양원진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하게 된 사건이라 하신다. 이때 미군차량이 돌진하며 선생님을 밀어붙여 당시로써 엄청나게 비싼 가게의 통유리를 깨고 쓰러졌는데, 그 가게주인이 유리 값 배상을 요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을 껴안고 도주시켜주어 당시 체포를 면했다고 하신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침략군으로서의 행태를 보며 우익적 환경 속에서만 자라났던 양원진 학생은 점차 좌익적 환경으로 빠져들었다. 이리하여 1947년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입당하게 되었다.

그 후 선생님은 학생운동에는 나서지 않으셨으며 당원으로서만 활동하였다고 하신다.

그런데 당 활동의 하나로 방학 중 고향인 신안군 지도면에서 빼라투쟁을 주도하여 수배되고 목포로 피신하였다. 하지만 다행히 선생님의 이름이 호적(양원진)과 학교에서 쓰이는 이름(양철정)이 달라서 경찰이 헛갈리는 바람에 체포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체포는 피했지만 경찰이 아닌 우익세력에 의하여 처음으로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 1947년 7월 27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날 월기대회에 참가하러 가던 도중 다름 아닌 경찰서 앞에서 우익세력에 의해 엄청난 테러를 당한 것이다. 그야말로 안 죽고 살아난 것이 신기할 만큼의 대단한 테러였다고 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양원진 선생님의 활동은 멈출 줄 몰랐다. 테러를 당한 뒤 1948년 2월 전북 군산으로 이사하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경영하시는 〈이목소주회사〉를 통해 비밀활동을 지속하였다. 당시 지리산 등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 가운데 부상 등으로 더 이상 유격대 활동이 불가능해 하산한 사람들을 충청도 등으로 분산시키며 그들의 피신처를 마련해 준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승만 정부는 1929년 9월 이후 출생자들을 징병함으로써 양원진 선생님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1949년 신흥대(현 경희대)를 입학한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바로 그 이듬해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 인천상륙작전 때 무전기고장으로 후퇴 못해 죽음의 고비를 넘기다

미군정 시기 우익세력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긴 뒤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그 뒤는 양원진 선생님은 계속 죽음의 전선을 넘나 들었다. 1950년 6월 전쟁 발발 후 바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학생위원회로만 활동하다 그 뒤 1950년 7월 중순에 이르러서 의용군으로 인민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남 아산에서 서해안 방어임무를 맡게 되는데 무전기 고장으로 미군의 인천상륙작전(1950.9.15)에 대한 정보를 너무 늦게 받게 되어 죽음의 고비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소속부대가 연대주력부대로 모든 인민군들을 후퇴시키고 맨 마지막에 가려는 그 순간 바로 미군이 진격하여 오면서 위기에 빠졌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하지만 이미 미군에 의해 전선은 차단된 상태였다. 이리하여 그 뒤 북으로 38선을 다시 넘는 과정은 차령산맥과 태백산맥을 타고 산 속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전투 그리고 기아 속에서 간신히 38선을 넘어간 것이다. 이 때가 1950년 10월이었다. 당시는 얼마나 치열한 전투와 기아 속에서 넘어간 전선이었는지 경기도 장호원에서 35명이었던 연대부대원들이 38선을 넘어서는 모두가 전사하고 양원진 선생님을 포함한 단 2명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38선을 다시 넘어 북으로 갔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곳도 이미 미군에 의하여 점령된 곳이고 단지 그곳 주민들만이 전쟁 전 북의 인민들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선생님은 당시 북이 미군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하여 전선 남쪽으로 보낸 최현 장군의 제2군단에 편입되어 인민군으로써 다시 미군과의 총격전을 치르며 또 다시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게 되었다. 여기서도 전체 인원은 잘 모르지만 양원진선생님께서 소속된 부대만 하여도 5천에서 1만 명 가량 의용군과 빨치산 등으로 보충 받았는데, 그 후 모든 전투를 마치고 돌아가니 그 많던 전우들은 150명 가량밖에 안 남았다고 한다. 이렇게 큰 전투를 치르고 당시 고생하였다고 1951년 초쯤 후방에서 3개월간 쉬라고 하여 휴식시간을 주어 청천강을 넘어 쉬는데 문제는 미군의 세균무기였다. 이에 열병에 걸려 또 다시 죽음의 문턱에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연대간호원이 10리나 쫓아와 주사를 놔주고

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 그러며 당시 간호원이 같은 의용군출신이라 자신을 더욱 잘 봐준 것 같으며, 그가 당시 진명여고 3학년이었던 것까지 기억하시며 웃음을 지으신다.

후방에서 병을 치료하고 다시 전선에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6군단에 소속되었으며 휴전 때까지 선생님께서는 그야말로 최전선에서 계속적으로 싸우셨다고 한다.

### 남파공작원 양원진, 누나에 의한 경찰신고

죽음을 넘나든 전쟁은 3년이 지나 선생님께서 25살이 되던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총격을 멈춘다. 하지만 사상과 혁명성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양원진 선생님은 1955년 3월

남파공작원이 되어 그에 따른 훈련을 받고 남파될 날을 기다렸지만 남쪽으로 넘어와 결합하게 되어있던 조직들이 계속 파괴됨으로써 남파는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리하여 1957~58년 한 2년 동안 남파되지 않은 채 다른 남파공작원들을 남쪽으로 넘겨주고 남쪽에서 다른 조직과 연결시켜 주는 등의 본부연락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자신도 계속해서 남쪽으로 넘어왔지만 자신의 과업을 따로 갖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남파공작원들에게 공작금전달 및 또 다른 연결을 주선하는 등 그들의 옆에서 도와주고 다시 북으로 오는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선생님의 표현처럼 “걸음마다 걸렸는데 정말 운 좋게 체포되지 않았다”고 하신다.

이렇게 남쪽에 양원진 선생님이 원활하게 침투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남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1959년 남파되는데 고향에 와서도 경찰끄나풀에 의하여 체포될 뻔한 것을 마을 사람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그런데 진짜 큰 위험은 거기가 아니었다. 당시 달러환전을 부탁하기 위해 누나를 만나려고 편지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누나가 다름 아닌 경찰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이 얼마나 운명의 장난이던가 정말 오랜 시간을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님께서 체포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극적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친누나의 신고에 의하여 체포되었다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나로서 정말 뭐라 말하기 힘들었다.

이리하여 1959년 7월 8일 체포된 이후 감옥생활이 지속되고 29년 6개월이 지난 198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출소를 하셨다고 한다.

### 통일의 일조자에서 전사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시간의 말씀가운데 이곳에 옮기지 못한 이야기는 위에서 쓴 글의 열배가 넘는다. 하지만 물리적 공간의 제약과 표현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만 줄이며, 선생님과 처음 만난 날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글을 마지막 정리하는 때쯤인 이번 2010년 1월 산행의 뒤풀이에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새해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난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 그 동안 저는 양지에서 음지로 이동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전선에는 서지 못하더라도 조국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살아 갈 것이며, 또 통일운동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통일운동의 〈전사(戰士)〉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순옥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글로써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 병역거부를 하고 현재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권순옥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후원으로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9년도 다 가고 201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들만 계속되어 많이 안타깝고 마음도 아프지만 새해에는 모두가 좀더 행복해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외에도 수감중이신 많은 분들도 힘내시기 바라며 이 추운 겨울 몸 건강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는 추운 겨울이 계속되며 아픔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좀 더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인천구치소에서 순옥



### 김달식의 편지

양심수들의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귀 회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 해 福 많이 받으세요.”

- 화물연대본부 김달식 본부장 드림



### 강성철님의 편지

임미영 사무국장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심수 후원회 분들께 이제 인사드리는 것조차도 죄송스럽습니다. 적들에게 먹이감 되는 것도 죄인데... 그래도 힘과 용기를 주시니 적들에겐 분노심을, 동지들에게 감사함을 배웁니다. 구속노동자 후원회 동지 석방 투쟁에도 감사드립니다.

- 강성철 드림



### 양태조의 편지

만기출소를 보름여 남겨두고, 2년여 만에 첫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이 많아도 다 사람이 아니다.’ 라더니 사람으로 나서 사람의 도리를 못한 저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인 듯 합니다. 한 것 없는 사람이 ‘양심수’로 불리니 꽤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십수 년 노동운동을 하느라고 해왔지만 어느 시인처럼 하늘을 우러르지 않아도 충분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들을 정당하게 책임졌는지, 정파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수 있었는지, 대중들과 동떨어진 대중간부는 아니었는지, 사적영역이 공적영역에 앞서지는 않았는지.....

선배들이 피땀으로 일궈놓은 길에 무임승차하듯 편하게 운동을 해오다보니 진짜 ‘양심수’였던 선배님들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워서는 안될 것 같았습니다. 그저 ‘구속노동자’ 정도면 충분한 이름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권오현 명예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심보다 반성이 더 어렵다고 출소를 앞두고 착잡한 심경이 앞섭니다.

징역 시작할때의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을 하며 지난 2년을 보냈는지 손에 잡히는게 없습니다. 더구나,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다 거의 세배가까이 늘어난 양심수 명단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치, 동지들을 사지에 남겨두고 혼자서만 내뺄는 것만 같아 마음이 개운치 못합니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모든 구속 동지들에게 안부전합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얼굴 한번 본 적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같은 아픔과 같은 분노와 같은 소망을 가진 ‘동지’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노총이 주력부대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동지들의 우려와 지적을 들었습니다. 나름 내 부로부터 혁신을 통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은 머지않아 민중의 희망으로 굳세게 우뚝 설 것입니다.

나가면 예전처럼은 살지 않겠습니다. 더 철저하고, 더 치열하고, 더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기간 보살펴주신 은혜에 달리 내세울 것 없지만 결의와 새로운 결심으로 보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2009년 12월 21일 여주에서 양태조 드림



#### 양형근 님의 편지

happy new year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길…….

암울했던 09년이 지나가네요.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동지들이 계시기에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외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기수 선생님들! 후원회 동지들!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은 덕분에 수감생활 잘 해내고 있습니다. 09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억압과 착취없는 세상을 위해!!

- 수원구치소 양형근 드림



#### 문기주 님의 편지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동지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후원회원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쌍차 투쟁으로 구석된 문 기주입니다.

후원회 회원 동지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 전국에 구속된 동지들 한 명 한 명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영치금과 책 잘 쓰고 잘 보고 있습니다.

201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을 되돌아보면 새해 벽두부터 용산참사(1월20일), 화물연대, 쌍용자동차, 전교조, 공무원, 철도노

조 등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친서민 정부라는 MB정권의 탄압에 의해 신음하고, 고통받고, 구속되는 한 해였던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용산참사가 종교계와 민주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345일 만에 합의가 되어 1월9일 장례를 치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 평택 구치소에 수감된 쌍차 지부장을 포함한 11명과 구속 노동자 후원회 인권팀장(강성철)동지. 연대단위 동지들과 함께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추모할 예정입니다.

동지들 ! “호랑이도 쥐를 잡을 땐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0년엔 호랑이의 용맹함을 노동자,농민,서민들이 가슴으로 받아 안아 삼절정권,날치기정권,재벌정권인 MB정권에 맞서 대 반격하는 투쟁의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중이 주인되는 그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하고 박살내자”

- 2010년 1월3일 평택구치소에서 문기주



### 박금석 님의 편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그 동안의 쌍용차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해는 어제와 같이 떠오르지만 햇빛은 어제의 햇빛이 아니고, 꽃은 한 나무에서 피지만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날마다 새로운 웃음 웃는 행복한 2010년 庚寅年 맞으시길 기원하며,

민주노조 사수! 현장복귀! 를 위한 쌍용자동차지부의 더욱 힘찬 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지 바랍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직무대행 박금석



### 이기호 님의 편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따스한 연대의 손길에 고무되어 운동 및 식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신이 너무 늦어 죄송스럽습니다.

평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하면 푸근함과 동시에 무언가 빚진 마음에 가슴 한쪽 먹먹해져 오곤 했습니다.

제가 과연 자격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게 되는군요.

앞으로 더욱 가열찬 투쟁 속에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새해도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 서울 건설산업 노동조합원 이기호

## 민중의 망치

장민호 | 이른바 '일심회' 사건관련양심수

오랜 침묵을 실어 나르며  
 주름진 세월의 물결들이 굽이 굽이 일렁이는  
 한강 줄기를 거슬러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강변.  
 무수한 망각의 모래알들이 쌓인 언덕위로  
 솟아오른 수많은 콘크리트 무덤들과  
 십자가들의 기인 능선을 따라  
 여의나루 별판 금융거리의 증권거래소를 지나면

이 나라의 모든 힘줄기들이  
 굽직한 자본의 줄기를 만나  
 물결 세차게 넘실거리는 여울목에 이르고  
 위태롭게 떠있는 모래독섬 여의도.  
 저수지의 한 무리 개들이  
 강 건너 물 사람들의 피와 땀을 흥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거래하며  
 이합집산과 이전투구를 벌이는 식민지 정치거래소의  
 복마전이 펼쳐져 진다.

한강 줄기를 조금 더 거슬러  
 그 배후에 이르면  
 퇴역한 미제 폭격기 B-29가  
 나이드 잊은 채 위용을 뽐내던  
 옛 5.19 광장의 검은 아스팔트 별판이  
 이 섬의 한 복판을 가로 지르고  
 사쿠라 꽃 만발한 광장대교가 멈추는 곳에  
 미 국무성 동아시아국 한국과의  
 대한민국 입법부가  
 모래 위의 누각처럼 위태롭게 서있는데

놈들은 그 곳의 높은 단상에 올라  
 자신들을 선출한 사람들을 아래로 굽어보며  
 탕 탕 탕! 망치를 내리친다.  
 그런데 놈들은 오래 전  
 나라와 동족을 팔아먹던 나쁜 놈과  
 더 나쁜 놈들 중에서  
 가장 나쁜 놈들을 국민의 선량으로 뽑아야 했던  
 그 때 그 시절의 그 놈들.  
 혹은 그놈들의 후손들이다.

홍정과 거래가 끝나면 탕 탕 탕!  
 놈들은 망치를 내리친다.  
 막대한 예산이 통과되면  
 사람들은 그만큼 털린 것이고  
 놈들의 저수지 모래독은 그만큼 솟아오르며  
 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들로  
 채워 넣기 위하여 탕 탕 탕!  
 놈들은 계속 망치를 내리친다.  
 무더기 법안들이 통과되면  
 파업과 시위는 도중에 불법이 되고  
 별안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체포되거나 어디론가 사라졌다.

놈들은 굽기야 탕 탕 탕!  
 사람들을 내리쳤다  
 애시당초 사람들의 죄란  
 이미 충분히 빼앗기고 억눌린 죄.  
 애시당초 놈들이 손에 쥔 것은  
 법의 망치가 아니라 몽둥이.  
 이미 오랜 세월 빼앗기고 억눌린 동족을

더욱 빼앗고 억누르기 위하여  
제국주의 놈들이 놈들의 두 손에 쥐어준  
전쟁의 총이요 칼이었던 것.

탕 탕 탕! 전쟁의 총성이 서서히 잦아들던  
어느 날. 놈들이 이르기를  
산 자들이 그나마 살아남은 것은  
놈들의 은혜로운 종교와 제도 그리고  
놈들이 벌인 전쟁과 학살 덕분이라는 것.  
이에 대하여 모두들 묵묵히 동의하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놈들의 은혜와 덕을 누리지 못하여  
그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자들은  
살아남지도  
역사에 기록되지도 못한 채  
차디 찬 땅 속에 묵묵히 묻혀 버렸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그 무덤 곁에서  
묵묵히 침묵을 지켰기 때문일 뿐.  
이 땅의 오랜 침묵과 배제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살아남지 못한 자들의 무덤가로  
살아남은 자들의 침묵과 망각을 실어 나르며  
고요히 흐르는 한강변 모래언덕을 따라  
배제되고 쫓겨난 자들의 빼앗긴 들판은 이어지고  
놈들은 여전히 내리친다.

이미 오랜 세월 짓밟히고 쓰러져온 사람들은  
탕 탕 탕 총맞은 사람처럼  
지금도 여전히 쓰러지고  
더욱 더 짓밟힌다.  
쓰러지고 짓밟힌 사람들의 어깨위로  
놈들은 시간을 거슬러 중세기의 돌기둥을 세우고  
저들만의 성경과 율법을 새긴다.  
외면과 적대의 벽들이 쌓이며

쫓아오르는 성벽 너머로  
저들만의 교회와 뉴타운이 들어선다.

쫓아오른 성벽의 다른 한 권.  
광 광 광 부서지고 무너져내린  
파업현장의 바리케이트.  
불타버린 철거현장의 옥상망루를 지키던  
이 땅의 빼앗기고 억눌린 자.  
배제되고 쫓겨난 자들은 부서져 떨어져나간 판자지  
붕 너머

한 조각 판자만한 하늘을 향하여 목놓아 외치고  
또 외쳐보지만  
외면과 적대의 차디 찬 벽들은  
말없이 쌓여만 가고  
저들의 성벽은 한 조각 하늘마저 가로막으며  
거침없이  
거침없이  
쫓아오른다.

울거나  
울부짖던 자들은 이제  
묻기 시작하였다.  
이 땅의 빼앗기고 억눌린 자.  
배제되고 쫓겨난 자들의 터전 위로  
거침없이 쫓아오른 저 교회와 성벽.  
기둥 위에 새겨진 그 모든 믿음과 율법들.  
의례와 절차들은 다 무엇인가?  
저들의 교회에 거하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아무리 외치고 물어도 놈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탕 탕 탕  
망치만 내리칠 뿐. 날이 저물면  
이 나라의 지치고 고단한 국민들은  
서둘러 잠을 청하고  
놈들의 하나님이 거하는 지구 반대편.

미 합중국 워싱턴 디씨의  
아침이 밝아올 터.

탕 탕 탕 놈들은 서두른다.  
놈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워싱턴 디씨의 날이 저물기 전에.  
이제 곧 이 나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피와 땀을 조금이라도 더 짜내어  
놈들의 하나님인 벌인 골육상잔의 전쟁터로  
피를 나눈 형제들을 겨눌 대포와 포탄들을  
조금이라도 더 실어 나르는 것.  
지구의 도처에서 벌인 전쟁의 수렁 속으로  
지쳐 잠들어 있는 동족들 중의 누군가를  
서둘러 쳐 넣는 것.

이것이 바로 놈들이  
머언 옛 날 어느 외국의 성자, 욥(JOB)의 행적을  
오해하여 오랜 세월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온  
놈들만의 비루한 생존비결이요  
살아온 방법이며  
변치않는 종교적 믿음.  
승미시대 전쟁 자본주의.  
인간배제 동족적대 민주주의의  
구차스러운 절차와 의례인 것이다.

그 무렵 여의도의 밤 하늘에는  
포연처럼 검은 구름 사이로  
등근 달이 떴다.  
오래 전 놈들의 좋았던 시절.  
이 나라를 통째로 씹쓸이 하던  
팔광(八光) 화투장의 그 등근 달이  
망치소리 요란한 식민지 국회건물 위로  
생똥맛게 떠오른 것.  
놈들의 간절한 소망  
오랜 세월 기다려온 구세주처럼.

그러나 달은 그냥 달일 뿐!  
달 밝은 밤이면 놈들은  
옛 5.16 광장이나 용산 전쟁박물관의  
미제 폭격기 주변을 배회하며  
파쇼는 아무나 하나! 철 지난 유행가를 읊조리며  
우울한 종교적 감상에 빠진다.

사실인 즉 놈들에게는  
두뇌를 사용하며 사유하고 성찰하는 일  
혹은 법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거나  
밤새워 팔을 움직여 망치를 치는 일들 이란  
고되고 거추장스러우며  
무엇보다도 계급적으로 혐오스러운  
노동일 뿐이었던 것.  
놈들은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행위와  
식민지 마름의 비루한 처지를 한탄하며  
오늘도 우울하게 탕 탕 탕  
달밤의 망치를 내리친다.

이제 우리들은 놈들의 종교에 대하여  
남김없이 알게 되었으니  
놈들의 성부는  
이미 성부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은밀히 도주길에 오른 그러나  
침략과 착취의 본성만큼은 추호도 변치않은  
미 제국주의 무리들.  
놈들의 성자는  
갈 길 바쁜 성부의 다리를 붙들고  
놈들이 아무리 부활을 간청하여도  
단지 이미 죽어버렸기에 살아날 리 만무한  
그 때 그 시절의 식민지 파쇼 무리들.  
놈들의 성신은  
이 땅의 어두운 밤 하늘을 떠돌며  
우리들의 고단한 밤잠을 파고드는  
오래된 분단의 악몽.

이제 그것을 깨어 버리자!  
이 땅의 빼앗기고 억눌린 자.  
배제되고 쫓겨난 자들은  
요란한 달밤의 망치소리.  
오랜 악몽으로 고단한 밤잠을 뒤척이느니  
차라리 깨어나 일떠서자!  
우리 모두 일떠서는 그 순간.  
전쟁과 독재의 망령. 분단의 악몽도 모두  
한 순간의 개 꿈일 뿐.  
그 개 꿈마저 깨어버리고  
모두 모여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들의 고단한 밤잠을 툼 타  
우리들의 피와 땀을 자내던  
놈들의 망치를 빼앗아  
놈들을 내리치자!  
식민지 자본의 모래독 저수지를 부순 터 우에  
인간의 새 세상을 세우자!

우리들의 근심과 고통을 털어주고  
우리들의 운명을 내 맡길 선량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 뿐! 그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가 노동자를.  
농민이 농민을.  
서민이 서민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정 여의치 않으면  
나쁜 놈과 더 나쁜 놈들 중에서  
가장 나쁜 놈들은 기필코 응징하는 것.

이 땅의 빼앗기고 억눌린 자.  
배제되고 쫓겨난 자들아!  
나아가자 앞으로 앞으로!  
우리 서른 두 손 굳게 맞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  
불패의 무기는 이미  
그 두 손에 쥐어져 있으리니 이제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자! 민중의 이성으로  
민중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타산하며

필승의 방도를 내오자!  
놈들의 망치를 빼앗아  
민중의 망치로 삼아  
놈들을 내리치자!  
식민지 민주주의를 부순 터 우에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세우자!

존경하는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의 권오현 명예회장  
님, 김호현 회장님 그리고 일꾼 동지들과 회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민호입니다.

엄혹했던 지난 한 해에도 변함 없이 빼앗기고 억눌  
린 사람들의 곁을 지키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동지적  
배려와 격려를 보내주신 후원회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에 고  
마운 발걸음 주셨던 변외성 동지. 그 때에 제 안경 돛  
수가 잘 맞지 않아서 알아 뵈지 못하여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얼굴을 내밀어 일별의 인사를 주셨던  
임미영 동지. 모두 이 편지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진지하고 가열찬 투쟁으로  
동지들의 배려와 격려에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회의 모든 동지들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승  
리를 기원하며 인사를 마칩니다.

- 2010.1.12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올림

새해를 맞이하여 다가올 투쟁들을 생각해보며  
부족한 글 한 편 첨부하였습니다.  
어깨가 좀 아파서 필체가 유난히 엉망이니  
송구스럽습니다.

## 내년 신년 산행은 다시 금강산에서...

모성용 | 양심수후원회 부회장



2007년 8월 19일 불암산에서 창립 산행을 갖고 그동안 진보사회단체 각각에서 운영되던 등산모임들이 '6·15한마음 통일산악회'라는 이름으로 통합결성식을 가졌다.

사회 각 부분,부문에서 자주민주통일과 6·15공동선언지지, 이행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동시에 단결을 돈독히 하도록 하기 위해 창설됐다.

이날 창립출범식 산행은 양심수후원회, 범민련후원회,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실천연대, 통일광장, 유가협, 민자통, 통일뉴스 등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회장에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을, 공동대표에 노중선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임종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김영미 두하나 전무,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뽑았다. 아울러 등반대장으로는 양심수후원회 산악회 신현익, 김재선, 범민련후원회 산악회 이정태, 통일뉴스 산악회 강도웅씨를 각각 선임했다.

어쩌면 별로 쓰잘 데 없는 이야기를 왜 쓰냐 하면 곱씹자는 거다. 창립 때에는 나름대로 각 단체에 대한 배려와 배분문제도 있었을 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도 저지 시간을 못맞추는 분도 계실 것이다. 창립 3주년이 되는 내년 쯤에는 한 번쯤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회원들은 첫해에는 서로들 좀 서먹서먹한 느낌이 있어서인지 함께 뒷풀이는 해도 자리는 각 단체 사람들끼리 앉는 등 단합된 모습을 찾기가 어려웠고 2차를 가도 각각이었지만 몇 번의 산행 끝에 어느 사이엔가 허물없이 어울리는 모습이 오래된 선후배사이만 같고 각 단체간의 협력도, 우애도 단단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역시 사람이고 단체고 부대끼며 한술밥 묵고 살 부벼 보는 게 친목의 제일이라 느낀다.

창립출범식 산행 이후 2차 산행은 불광동 방면 북한산, 3차 도봉산, 4차 수유리 방면 북한산, 5차 낙성대 방면 관악산 등 매달 한 차례씩 산행을 해왔으며, 6차 산행인 2008년 신년산행은 금강산 신년산행과 다짐대회를 위해 서울, 강원, 충남, 충북, 광주, 부산, 경남, 제주 등 경향각지에서 온 162명의 회원들이 가족, 지인들과 함께 금강산에서 가졌다.

“금강산 산행은 단순 산행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 통일을 가로막는 그 어떤 걸림돌도 걷어내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산악회장 권오현님의 일성이다. 창립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신년산행을 전국각지의 회원들과 함께 금강산에서 치르게 된 것은 감격스러운 성과였다.

먼 과거도 아니다. 고작 2년 전의 일이다. 2008년 신년산행을 1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간 금강산에서 갖고 5일 저녁 옥류관에서 만찬을 겸해 ‘남북공동선언 이행, 자주통일 다짐대회’를 가졌다.

한해가 지나 2009년이 되었고 09신년 산행은 금강산이 막혀 다시 연례행사처럼 평창동 북악파크에서 일선사 방향으로 올라가 청수천 계곡으로 하산해 정릉입구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를 잡았다. 그 날, 김교영 선생님께서 신년하례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취소해야 했다.

1월부터 용산참사라는 사건이 열두 달 내내 촛불이 되어 거리에서 빛났고 한반도의 한쪽에서는 인공위성이 올라 저 하늘에서 빛나더니 두분의 대통령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늘나라로 보내는 큰일을 치렀고 평택에선 77일 간의 쌍용차 파업농성이 봄부터 여름까지 아스팔트를 달구어 마침내 우리들의 가슴마저 뜨겁게 불을 질렀다.

정말 일군 한 사람 잘못 뽑은 것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할 줄은 미처 몰랐다. 힘들고 아팠고 가슴 저렸던 한 해의 마지막 산행이다.

인왕산 !!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는 달리 5년만에 단 한 명의 입학생을 뽑는다는 청와대의 뒷산이다. 이명박이란 이름의 입학생이 그 누구에 말도 듣지 않고 홀로 와대 기숙사를 지킨다는 말을 들은 6·15산악회는 뒷산에서나마 소리를 질러 보자고 2009년의 마지막 산행을 정한 곳이다.

뭐, 요구는 단순했다.

“내년 신년 산행은 금강산에서 ~~~”

전날까지도 날이 너무 추워서 이번에는 많이는 못오시지 했는데 웬걸 늘 먼저 도착하시는 분 먼저 도착해 계시고, 늘 간당간당 시간 맞추시는 분 그렇게 오시고, 차라리 뒤에 올 것을 이삼십 분 늦어 지각이라 욕먹는 분 이번에도 한 말씀 들으시고, 먼저 오르고 있으면 부지런히 뒤따라 와 늦고도 박수받는 분 역시 그리 따라오시더니 이번에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고 뒷풀이에 합류하신다는 분까지 계셔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어디쯤 왔는지 여기가 어딘지 전화기 손에 들고 물어보고, 알려주며 올랐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김신조 침투로였다는 와대 뒷산은 어디를 가던 옛된 군인들이 친절히도 길을 안내한다. “이쪽으로는 못가십니다. 저리로 가십시오” 왜 이리로는 못가는지 왜 저리로 가야하는지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저 하달받은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일 뿐...

능선을 따라 새롭게 산성을 쌓아올리는 듯 했다. 아니면 보수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산 중턱에서 만난 사적터널 위부터 시작해 북악스카이웨이를 거쳐 혜화동까지 이어져 있다는 산성길을 따라 가다 갈림길에서 산성과 작별을 하고 홍제동 쪽으로 내려갈 것인지 산성을 따라 자하문쪽으로 내려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쉬는 잠에는 늘 나타나는 막걸리 몇 병이 꺼내어지고 사진도 몇 장 찍었다. 산성을 따라가면 자하문쪽이고 아래 계단쪽으로 내려가면 홍제동 방향이다. 십여분여의 휴식 끝에 홍제동 쪽으로 하산방향을 정하고 나아간다. 산행 매번 사전답사를 오기는 어렵지만 지난번 인왕산을 찾았을 때와는 너무도 달라져 왜 답사를 한했던고 싶다. 저리로 내려가자니 철망에 가로막히고 이리로 가

려니 선객이 저쪽으로 가야한다고 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기를 두어차례, 없는 길도 만들어가며 내려선 곳은 홍은동 개미마을!!

허어, 이런 우연이 있나 어쩌면 용산에 이어 재개발이 진행되어질 곳인데..... 도시의 두얼굴이 그대로 보여져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사오십대들에게는 도시변방의 옛 추억이 새록새록 돌아나는 동네이기도 하다. 40~50년전 지어진 집들과 묘하게도 어울어지는 그림이 가득한 동네를 가로질러 내려선 곳은 뒀 눈에는 뒀만 보인다더니 옛 안기부 홍제동 대공분

실. 현재는 홍제동 보안수사대다. 눈길도 주기 싫어 얼른 외면하고 홍제역 쪽으로 나아가며 뒷풀이 자리를 찾는다.

친절한 주모를 만나 맛나게 먹고 마시며 1년간의 산행을 한번도 빠지지 않은 김채선 산악대장님께 개근상을 수여하고 알뜰하게 살림하고 남은 회비로 회원모두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조그만 선물을 나누었다. 기온은 차다지만 마음은 따뜻한 2009년 마지막 산행이었다.

신년 산행은 금강산으로, 3주년 기념산행은 백두산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 2010년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선언

2010년 새해가 밝아왔다. 6·15공동선언 10년을 맞는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지·이행하겠다는 의지로 아름다운 조국 산하를 밟으며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우애와 단결을 다져온 지 3년이 되고 있다.

산행을 통한 공동의 목표들에 연대 연합 한다는 6.15산악회 설립 취지를 살려 해마다 첫 산행에서는 특히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 했었다.

2008년에는 천하명산 금강산에서 170여명이 함께하여 ‘공동선언 이행 자주통일 다짐대회’로 새해를 맞았고, 수정봉과 삼일포 등 절경을 답사하며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산하를 자유롭게 밟을 수 있는 통일 세상을 다짐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금강산 길이 막혀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뒤 지난 10년의 자주 통일로 가는 화해 협력 정책을 뒤집어 반복 대결 정책으로 역사의 반동이 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개성관광 뿐만 아니라 남북사이 당사자 대화가 끊기고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 교류사업 심지어 인도주의 사업조차 냉전사고속에 제한적인 명맥만 유지되고 있다.

외세와 분단에서 자주 통일 시대로 가는 것은 역사의 당위이고 최상의 민족적 과제이다.

온 겨레의 열광적 지지와 온 세계가 기립박수로 환영한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어떤 이유에서도 더 이상 미루어 질 수 없다. 그래서 6·15한마음통일산악회는 2010년 새해 첫 산행을 하면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 더 나아가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반복 대결 정책을 그만두고 6·15, 10·4선언 이행의지를 밝혀야 한다.

하나. 남북 사이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 각종 대화 협력 사업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하나. 조건없는 금강산 개성관광 즉각 재개와 이미 민간부분에서 합의한 백두산 관광을 비롯하여 남북사이 왕래의 길을 넓혀야 한다.

2010년 1월 17일  
6·15 한마음통일산악회

# 아프간파병계획을 철회하라!

모성용 | 양심수후원회부회장

350명 이내의 국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병동의안이 12월 1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동의안은 파견 기간을 내년 7월부터 오는 2012년 12월 말 까지 2년 6개월로 하고 민간인 100여 명과 경찰 40여 명 등으로 구성될 지방재건팀 보호를 위해 특전사 대테러팀을 포함한 군 병력 320명과 파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대 방호를 위해 기동헬기와 소형 무인정찰기인 UAV, K-11복합소총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느낀 것 몇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것은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아프간의 참상의 심각성입니다.

아프간에서 태어나는 유아의 1/4이 5살 이전에 사망하고, 임산부의 1/6이 출산 중 사망한다. 평균기대수명은 42세로 점령 이전보다 낮아졌다. 5~14세의 어린이들의 30%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고 50%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최강국이라는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느냐는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평화를 보장받을 수도,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땅에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남의 땅에 전쟁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전쟁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두 번째로 이 파병은 한미 전략동맹의 일환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방어적 동맹에서 전략동맹은 한미동맹을 문자적 가치만 있는 '가치와 신뢰에 기반하여' 그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그 지리적 범위도 전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포장한 침략적 동맹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그 구체적 표현이 바로 아프간 재파병입니다.

12월 15일 뉴스에 따르면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어제 주한미군을 한국 밖으로 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가 특히 한-미 양국 군의 동시 해외파병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향후 주한미군의 아프간 파병, 또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한국측 부담 증액 등을 겨냥한 포석이라 생각됩니다.

막대한 재정적자 발생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 정부가 군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발언인데 이것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동맹인가 싶습니다.

더욱이 8년이나 계속되는 아프간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아 2011년 철군을 내놓은 마당에 2012년 말까지 2년 6개월간의 파병기간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기는것도 정도가 있고 이걸 절대로 동맹의 수준이 아닌 철저히 미국위주의 동맹입니다.

**한미 전략동맹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프간전쟁의 원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 미국의 9·11사건 직후인 10월 7일부터 미국과 영국 중심의 '항구적 자유 작전(OEF: Operation Enduring Freedom)'으로 시작

되었고 그들은 ‘테러세력 소탕’, ‘아프간 안정화’를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미국이 아프간을 침략한 진정한 이유는 ①카스피해 주변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송로를 확보하고 ②중국과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③이란 압박과 파키스탄 등에서 반테러전쟁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증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석유회사인 유노칼(Unocal)의 국제관계담당 부사장 존 J. 마레스카(John J. Maresca)가 1998년 2월 12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카스피해 지역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내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236조 세제곱 피트 이상과 맞먹는다. 그 지역의 총 석유 매장량은 11년 동안 유럽 전체의 석유 수요량에 해당하는 600억 배럴 이상에 달하며, 일각에서는 2천억 배럴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 단,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 지역의 광대한 에너지 자원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시장까지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다. …… 가능한 유일한 루트는 아프가니스탄을 가로지르는 것인데 …… 수송관이 가로지를 영토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정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탈레반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나라들과 투자자들, 우리 회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승인된 정부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는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수송관의 건설은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9·11 두 달 전인 2001년 7월 열린 G8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한 의제가 안건으로 올라왔고 참가국들은 탈레반 정부가 파이프라인 건설 및 빈 라

덴 축출 작업에 동참해 줄 것을 압박했습니다.

탈레반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과 영국은 9·11을 빌미로 아프간을 침략해서 탈레반 정부를 무너뜨렸고 그 뒤 미국 정부는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로 유노칼의 고문이었던 잘메이 칼릴자드(Zalmay Khalilzad)를 임명하고, 뒤이어 역시 유노칼의 고문으로 일한 바 있는 하미드 카르자이를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선 아프가니스탄의 친미정권은 투르크메니스탄 및 파키스탄과 수송관 건설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미국의 아프간 침략의 속셈이 어디에 있었는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반대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한다면 전쟁은 명명백백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위선과 음모로 세상을 속이고 뒤에서 무고한 이들을 죽이고 이룩한 표면적인 평화라면 언젠가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아프간 재파병을 반대합니다.**

막간 이야기 - 지난 10월 프랑스 병사들은 카블동쪽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병력을 이동중 한번의 접전으로 10명의 전사자가 나왔는데 이전 이탈리아군대가 수비할 때는 공격이 없었던 곳이었다 합니다. 나중에 타임즈에 보도된 충격적인 소식은 이탈리아군은 주기적으로 탈레반과 군벌에게 상납금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에 분노한 사르코지대통령은 추가파병은 없다고 소리쳤다 합니다.

- **전쟁반대 파병반대 아프간파병 철회하라**
- **전쟁동맹 학살동맹 한미동맹 폐기하라**
- **미국의 침략전쟁 대행하는 아프간파병 반대한다**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 No. | 이름    | 소속              | 직책             | 사건명                     | 구속 날짜      | 수감지       | 적용법규     | 만기일     | 기/미결    |
|-----|-------|-----------------|----------------|-------------------------|------------|-----------|----------|---------|---------|
| 1   | 강 동 환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10   |          |         | 미결      |
| 2   | 강 성 철 | 구속노동자후원회(전해투)   | 인권팀 장(회원)      | 구속노동자 후원회 동쌍용차 파업 연대)   | 2009.10.6  | 평택구 213   |          |         | 미결      |
| 3   | 강 환 주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04   |          |         | 미결      |
| 4   | 고 동 민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09   |          |         | 미결      |
| 5   | 고 민 균 | 촛불시민            |                | 촛불 1주년 집회(5/2)          | 2009.10.18 | 서울구 195   |          |         | 미결      |
| 6   | 권 기 백 | 금속노조울산지부        | 부지부장           | 09예인선 파업 투쟁             | 2009.12.29 | 울산구23     |          |         | 미결      |
| 7   | 권 순 만 | 금속노조            |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21   |          |         | 미결      |
| 8   | 권 순 욱 | 기타              | 개인             | 양심에 따른병역거부              | 09-4-22    | 인천구1304   | 병역법      |         | 기결      |
| 9   | 김 남 수 | 금속노조쌍차 창원       |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19   |          |         | 미결      |
| 10  | 김 달 식 | 화물연대            | 노동자            | 박종태 열사추모전국 노동자대회        | 09-7-5     | 대전교 2756  | 집시       |         | 미결      |
| 11  | 김 대 원 | 재야              | 전철연(용산 4구역)    |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 09-1-23    | 서울구 187   | 특공 화염병   |         | 미결      |
| 12  | 김 득 중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28   |          |         | 미결      |
| 13  | 김 명 호 | 민교협             | 전 성균관대 교수      | 석궁 사건                   | 2007.1.17  | 원주교1352   |          | 2011/01 | 기결      |
| 14  | 김 선 영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수석부지부장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 2009.9.3   | 평택구 211   |          |         | 미결      |
| 15  | 김 성 일 | 재야              | 실천연대           | 실천연대 사건                 | 08-9-27    | 수원구 302   | 국보       |         | 미결      |
| 16  | 김 성 환 | 용산4가동 상가공사 철대위  |                |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 2009.10.27 | 서울구 141   |          |         |         |
| 17  | 김 수 욱 | 노동자             |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 07년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 09-1-6     | 안양교1187   | 업방       |         | 미결      |
| 18  | 김 연 호 | 촛불시민연석회의        |                | 촛불 1주년 집회(5/2)          | 2009.11.13 | 서울구67     |          |         |         |
| 19  | 김 영 익 | 재야              | 개인             | 양심에 따른병역거부              | 09-6-10    | 화성직업훈련교   | 병역법      |         | 기결      |
| 20  | 김 완 희 | 화물연대            | 노동자            | 박종태 열사추모전국 노동자대회        | 09-6-12    | 홍성600     | 집시       |         | 미결      |
| 21  | 김 우 근 | 금속기아차화성지회       | 08 단협이행촉구 공장장실 | 항의방문(법정구속)              | 2009.11.27 | 수원구345    |          |         | 항소중     |
| 22  | 김 재 호 | 재야              | 전철연(용산 4구역)    |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 09-1-23    | 서울구 171   | 특공 화염병   |         | 미결      |
| 23  | 김 재 환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23   |          |         | 미결      |
| 24  | 김 정 운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24   |          |         | 미결      |
| 25  | 김 주 중 | 금속노조쌍용차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 2009.8.5   | 수원구371    |          |         | 미결      |
| 26  | 김 주 철 | 민주노총 울산본부       | 본부장            | 09예인선 파업 투쟁             | 2009.12.29 | 울산구20     |          |         | 미결      |
| 27  | 김 주 환 | 재야              | 전철연(용산신계)      |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 09-1-23    | 서울구 20    | 특공 화염병   |         | 미결      |
| 28  | 김 창 수 | 성남 단대동 철대위      | 회원             |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 2009.10.27 | 서울구 155   |          |         |         |
| 29  | 김 태 수 | 범한택시노조          |                |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 2004.2.13  | 영등포교 1071 | 2014년 2월 |         | 기결(10년) |
| 30  | 김 학 주 | 이주노동자(중국교포)     |                | 국가보안법 위반 건              | 2005.10.   | 전주교 2509  |          | 2010/0  | 기결(5년)  |
| 31  | 김 혁   | 금속노조            |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20   |          |         | 미결      |
| 32  | 김기태   | 전국철도노조          | 위원장            | 09철도노조 파업               | 2009.12.13 | 서울구 113   |          |         | 미결      |
| 33  | 나 명 수 | 아고라논객(필명 권태로운창) | 학원강사           | 09 용산참사추모촛불집회(기무사 관련)   | 2009.8.11  | 서울구 107   |          |         | 미결      |
| 34  | 문 기 주 | 금속노조쌍차 경비지회     |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30   |          |         | 미결      |
| 35  | 문 현 준 | 홀리스 공동행동        | 대표             | 관악지역 노점철거 반대투쟁          | 2009.5.21  | 서울구 3     |          |         | 항소중     |
| 36  | 박 경 식 | 재야              | 개인             | 일심회                     | 07-2-1     | 광주교 5051  | 국보       | 2010/08 | 기결      |
| 37  | 박 상 욱 | 민주노총 전남본부       | 전 본부장          | 07이랜드 파업 투쟁연대           | 2009.12.18 | 순천교467    |          |         | 미결      |
| 38  | 박 세 준 | 금속노조인천지부        | 사무국장           |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7.6   | 수원구334    |          |         | 미결      |

2010년 1월 20일 현재, 민가협 조사 집계  
총 77명

| No. | 이름     | 소속              | 직책         | 사건명                         | 구속 날짜      | 수감지       | 적용법규    | 만기일     | 기/미결 |
|-----|--------|-----------------|------------|-----------------------------|------------|-----------|---------|---------|------|
| 39  | 박 은 국  | 재야              | 개인         | 양심에 따른병역거부                  | 09-7-3     | 화성직업훈련교   | 617 병역법 | 기결      |      |
| 40  | 블라 마르셀 | 이주노동자/공고        |            |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 2007.1     | 화성보호소     |         |         |      |
| 41  | 서 민 식  | 금속노 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07   |         |         | 미결   |
| 42  | 서 진 철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11   |         |         | 미결   |
| 43  | 손 정 목  | 재야              | 개인         | 일심회                         | 06-10-24   | 대구교 45    | 국보      | 2010/0  | 기결   |
| 44  | 안 중 현  | 광운대 (민주노동당)     | 전 부총학생회장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연대           | 2009.11.20 | 의정부교 872  |         |         |      |
| 45  | 오 정 민  | 재야              | 개인         | 양심에 따른병역거부                  | 09-6-2     | 서울구 2572  | 병역법     |         | 기결   |
| 46  | 유 정 희  | 원일교통노동자         | 해고노동자      | 원일교통노동자 민주화 투쟁              | 2008.9     | 안양교 1487  |         | 항소중(2년) | 항소중  |
| 47  | 윤 기 진  | 재야              | 범청학련       | 범청학련 한청련 불발회                | 08.2.28    | 대전교 4005  |         |         |      |
| 48  | 윤 창 호  |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조직국장       | 6.11 화물연대 파업(박종태 열사 투쟁)     | 2009.8.9   | 대전교 828   |         |         | 미결   |
| 49  | 이 광 대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8/5경철특공대 투입) | 2009.8.8   | 수원구 372   |         |         | 미결   |
| 50  | 이 기 호  | 촛불시민            |            | 쌍용차문제정부해결촉구 노동자/민중대회(7/25)  | 2009.7.28  | 평택구 216   |         |         | 미결   |
| 51  | 이 동 우  |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 노동자        | 임단협(07년 8월)                 | 08-11-2    | 안양교 1169  | 업방      |         | 미결   |
| 52  | 이 창 근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29   |         |         | 미결   |
| 53  | 이 총 연  | 재야              | 전철연(용산4구역) |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 09-1-28    | 서울구 29    | 특공      |         | 미결   |
| 54  | 인 태 순  | 재야              | 전철연        | 용산참사진상규명촉구                  | 09-3-3     | 서울구 241   | 공방      |         | 미결   |
| 55  | 임 창 호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01   |         |         | 미결   |
| 56  | 장 민 호  | 재야              | 개인         | 일심회                         | 06-10-24   | 대전교 4009  | 국보      | 2013/0  | 기결   |
| 57  | 장 영 희  | 재야              | 전철연        | 용산참사규탄                      | 09-4-27    | 서울구 216   | 특공협박    |         | 미결   |
| 58  | 정 병 기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03   |         |         | 미결   |
| 59  | 송 효 원  | 13기 한청련         | 의장         |                             | 2009.12.30 | 영등포구 4010 | 국보      |         | 미결   |
| 60  | 정 주 용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20   |         |         | 미결   |
| 61  | 정 효 수  | 금속 기아차 화성지회     | 전 조직 1부장   | 08 단협이행촉구 공장장실 항의방문(법정구속)   | 2009.11.27 | 수원구 348   |         |         | 미결   |
| 62  | 조 만 희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13   |         |         | 미결   |
| 63  | 조 익 열  | 노동자             | 화물연대       | 박종태 열사추모전국 노동자대회            | 09-5-16    | 대전교 987   | 집시      |         | 미결   |
| 64  | 천 주 석  | 상도4동 철대위        | 회원         |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 2009.10.27 | 서울구 169   |         | 항소중(5년) | 항소중  |
| 65  | 천 춘 배  | 노동자             | 화물연대(부산)   | 6월 총파업(08년)                 | 08-10-21   | 부산교 415   | 폭력      | 2010/04 | 기결   |
| 66  | 최 국 종  | 촛불시민            | 실업노동자      | 용산참사규탄 촛불집회(2/4)            | 2009.2.4   | 안양교 소     |         | 항소중(3년) | 항소중  |
| 67  | 최 기 민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25   |         |         | 미결   |
| 68  | 최 기 영  | 재야              | 민주노동당      | 일심회                         | 06-10-26   | 대전교 4003  | 국보      | 2010/03 | 기결   |
| 69  | 최 병 승  | 금속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            |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복직 투쟁            | 2009.5.16  | 울산구 33    |         |         | 미결   |
| 70  | 최 영 호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수원구 306   |         |         | 미결   |
| 71  | 하 동 기  | 재야              | 개인         | 양심에 따른병역거부                  | 2009.1     | 서울구 1905  | 병역법     |         | 기결   |
| 72  | 한 상 군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지부장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26   |         |         | 미결   |
| 73  | 한 일 동  | 금속노 조쌍용차 지부     | 조합원        |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 2009.8.6   | 평택구 227   |         |         | 미결   |
| 74  | 허 현 무  | 민주노동총           | 정치국장       |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 2009.5.2   | 서울구 109   |         |         | 미결   |
| 75  | 남 경 남  | 전국철거민연합         | 의장         |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 2009.1.11  | 서울구 71    |         |         | 미결   |
| 76  | 박 래 군  | 용산철거민참사법국민대책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용산철거민 살인진압항의 투쟁             | 2009.1.11  | 서울구 90    |         |         | 미결   |
| 77  | 이 종 회  | 용산철거민참사법국민대책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용산철거민 살인진압항의 투쟁             | 2009.1.13  | 서울구 155   |         |         | 미결   |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01 -----

✎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1년을 맞아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가로막는 법률적 장벽”이라고 주장했다고 언론들이 인용 보도했다. 사이트는 보안법이 제정이 “남조선에는 반통일 목적을, 자주와 민주를 억누르고 이른바 ‘사상과 이념대결’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며 “함께 손잡고 통일해야 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반통일 악법으로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법률적 장벽”이라고 했다. 사이트는 이어 “‘보안법 폐지문제는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면서 ‘통일애국운동을 범죄화하는 제도적 장치인 반통일 파소악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적 망신이고 민족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유영호저음 ‘북한 영화 그리고 거짓말’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후원회 회원이기도 한 지은이는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뒤늦게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에 입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데 민통선일대의 기행을 하면서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를 그린 〈하나를 위하여〉(선인 2008) 파낸 일이 있고 통일뉴스에 ‘북한 영화 이야기’를 연재 하여 호평을 받으며 있음. 6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저자의 인사말과 권오현 양심수 명예회장의 축하말로 간소한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푸짐한 뒷풀이를 했다.

✎ 이북의 최대북 최고인민회의의 의장은 지난달 만수대의사당에서 천치리(陳至立)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부의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인대 대표단 예방을 받고 친선적인 분위기에 속해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담화에는 북측에서 홍선옥 최고인민회의의 부의장 성자립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며 조중 친선의원단 위원장이, 중국측에서는 류샤오밍 주조중국대사가 배석했다고 했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30일 전격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의 무역 알꾼들은 이날 “당국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전격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으며 오후 2시부터 화폐 교환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북은 장전 수립 이후 1947년 12월 기존 화폐를 새 화폐와 1대 1 교환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한 차례의 화폐 개혁과 4 차례의 화폐 교환을 단행했다. 옛화폐는 새화폐의 교환비율은 100:1이라고 했다.

✎ 통일부는 민주노동당이 이북 조선사회민주당과 남북 정당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한 개성 실무 접촉(2일)을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와 핵 문제에 대한 북의 태도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당교류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불허했다’고 민주노동당에 통지했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 소식 218호’ 소식지짓는 발송작업이 있었음 문상봉, 박희성선생님 박운경, 소수영, 이진강, 변외성, 모성용 임미영 함께 하다.

✎ 서울지법 514호에서 양심수후원회 모성옹부회장의 쫓불 5차 재판이 열림.

다음 공판 2010년 2월 2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지다.

✎ 경찰이 충청로의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서버를 압수수색하다. 경찰은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3인의 아이디어와 서울본부, 부산본부 등 지역본부, 차량, 시설, 전기 등 분과들의 운영자 아이디어와 IT주소 등을 확인하다. 이어 검찰은 1일 새벽 경찰이 요구한 노조 집행부 15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가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는 목적, 수단, 절차, 주체적 측면에서 모두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경의 무리한 수사를 “공안단압”으로 규정하다.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철도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다. (후원회소식 218호 우리의 주장 보심)

### 02 -----

✎ 재일 〈조선신보〉가 ‘비핵화 첫 절차는 평화보장체계 수립’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950년에 발발한 조선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북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계속 내놓았음을 상기시켰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했다. 이북은 1974년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안, 1984년 남북미에 의한 3자회담의 개최를 제기, 1994년 평화협정의 체결과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요구, 1996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을 위한 잠정협정 체결(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을 제안했다고 하다. 신문은 “이처럼 조선측은 시대적 환경과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그때마다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교전상태의 제안을 거절하여온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 것이 2003년 10월에 발표된 북미 공동공문니케라고 적시하고는 “향방은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로 전환할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은 그 후 6자회담에서도 평화보장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논의에 붙였다면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도 ‘직접적인 당사국들’이 ‘적절한 발개의 연단’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항목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문은 ‘평화보장체계 수립이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된다’고 밝혀, 북이 ‘선(先)한반도 평화보장체계 후한반도비핵화’ 입장에서 있음을 명확히 하고 “12월 8일부터 보르네스 특별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고 확인하고 “미국이 조선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진실로 핵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이 급선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평화문제와 관련한 미국측의 용단을 촉구하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3대 위원장에 이영조 현 상임위원이 임명되어 지난 11월 30일 임기가 끝난 안병욱 전위원장의 뒤를 잇게 되다, 이영조 신임 위원장은 보수단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한나라당의 지명을 받아 05년 12월부터 상임위원을 지내 왔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성기 변호사 국

가인권위 위원회 헌법 철위위원장 지명에 이어 진실·화해위까지 모두 보수인  
사로 채워졌음

☞ 통일부가 대북협력 민간단체인 협의회(북민협) 소속단체들이 차기연도 대북인  
도적지원사업을 협의하기위해 북측 민족화해협의 회와 3일부터 10일까지  
중국심양에서 연쇄실무접촉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모조리 불허조차하다.

☞ 후원회소식 218호를 회원 1010부 해외 17부, 민족21 소식지 영치금을 양심  
수에게 발송하다.

## 03 -----

☞ 이북의 대표적 경제잡지인 개간 '경제연구' 최근호(2009.3호)가 화폐개혁  
에대해 화폐승배 사상을극복하는 사업을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음을 언론  
들이 인용 보도하다. 이 잡지는 '화폐유통의 계획화, 조직화사업 자체도 낡  
은 화폐승배주의 사상의 잔재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진행되  
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며 "돈만 아는 낡은 사상을 없애기 위한 투  
쟁이 오랜 기간에 걸치는 꾸준한 정치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올바른경제조  
직 사업에 의해 뒷받침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다. 이  
잡지는 또 "돈을 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화폐를 우상화하는 낡은 사상이  
남아있어서는 화폐의 역할을 과대평가해 그것에 만능의 힘을 부여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했다가 일정한  
시점에 가서는 소멸될 운명을 지닌 경제적 공간"으로 화폐를 규정한 뒤  
"그것을 사회주의 사회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려면 계획경제의 요구에 복  
종되게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다.

☞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기태(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불성실한 이유로 파업에 들어간지 8일만에 사측에 거듭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철회하다. 철도노조는 성명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밝히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사측편에서 지난 12월1  
일 철도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김기태위원장 등 지도부 15명에 체  
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자부장과 조합원을 포함 187명에는 업무방해혐의  
로 형사고발, 파업참가 조합원 800명에 대해 직위해제한 바 있음 (후원회  
소식218호)

☞ 답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8회 목요집회를 열다. 조순덕총무 사회로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의 국가보안법제정 61  
년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촉구발언 원진옥 범남분사무차장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정보수사기구의 불법적인 도감정사찰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국가보안법으로 20여년 옥고를 치루셨던 장기구금양심수 이석 립선생님께  
서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오시다 12월 2일 별세하시어 이날 연세대병  
원장례예식장 빈소에문상다녀왔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석 립선생  
님께서는 1986년 출소하신 뒤버출중으로 자리에누워 오랜 투병생활을 해

오셨음 (김영승권오 한다녀오다.)

☞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무건리 훈련장확장지지 공대위 제25차  
전원집행위 열다. 김종 일평통사 사무차장의 진행으로 전자집행의 결과 보  
고와 주병진위원장의 오휘리 주민동향보고, 안전으로 무건리 확장지지  
500일 주민촛불문화제, 중도위 강제수용계결이후 대응계획검토 각 온 오  
프라인 언론사 기고 운동과 기타안전으로 조직강화 및 워크샵 일정 마련  
등있었음

## 04 -----

☞ 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오후 4시에 '조선에서 새 화폐 발행, 교환  
사업 진행' 이라는평양발 기사를 통해서 "11월 30일부터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새 화폐와 자금까지 써  
오던 낡은 돈을 바꾸는 화폐교환사업이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이번 화폐교환은 주민들 거주지  
에마련된 화폐교환소에서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교환비율은 100대 1이  
며, 새 종이화폐는 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  
원, 5원 등 9종이며 주화는 1원, 50전, 10전, 5전, 1전 등 5종이다. 신문은 "국  
가와 사회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노동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을 우대하  
는 조치로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 농민, 사무원등 절대다수의 근로  
자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중앙은행 조성  
현 책임부원(44)의 말을 인용해 '화폐교환의 목적은 화폐유통을 원활히 함  
으로써 사회주의경제 강국 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데 있다'고 전했다. 조 책임부원은 "1990년  
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통화가 팽창되고 인민경제발전에서 불균형  
이생기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나현재는 전반적경제가 상  
승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비정상적인 통화팽창현상을 근절해 버릴  
수있는 물질적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하다

☞ 낙성대만남의 집에 기거하시는 출소 장기수 문상봉선생님의 여든 네 번째  
생신을맞아 선생님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출한생신축하연이 있  
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집밖 출입이 어려우신 선생님을 찾아 고향  
으로 송환되시는 그날 까지 건강하시기를 축원해드렸습니다. 김영승 강담  
박희성양원진 김영식선생님과 권오현모성용 임미영함께 했습니다.

☞ 용산 역사내 중국음식점에서 구노회가 주최한좌담 회가 있었음 미리 나는  
질문지를 기준으로 해서 촛불관련 장동규님의 진행으로 양심수문제 현 노  
동운동과 정세 등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앞으로 양  
심수들을 후원하는 인권 및 통일운동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결의로좌담 회를 마칩다. 이광렬 구노회사무국장, 임미영 양심수후원회 사  
무국장, 전해투이총배위원장, 박석삼 촛불연행자모임위원장이 함께 하다.

## 05 -----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담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개정안을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전적 합의하다. 이수영 한국경양사

##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총협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 임태희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교섭 창구단일화 전제),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2010년 7월부터 타임오프(Time-off)제 적용을 합의함으로써 애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복수노조 노사자율 전면 허용·노조 전임자임금 노사자율 결정'을 주장해 왔으나 한국노총이 지난 11월 30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경총, 노동부와 단독으로 협상에 나선 결과이다. 타임오프제는 올 7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 활동에 대해 사업장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로지 재벌 등 사용자만을 대리한 일개 정파 집단이고 한국노총 지도부는 수천만 노동자의 권리 팔아먹은 한심한 모리배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복수노조 유예를 통해 정부와 사용자가 노리는 것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 즉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중소영세 노동자,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타임오프제 역시 전임자임금을 금지하기 위한 편법 일뿐"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국민연대 소속 회원 2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제정 61주년(12월 1일)을 맞아 국민감사 중단, 공안탄압 저지, 2009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 국민연대 권오현(양심수후회회 명예회장) 공동대표의 대회사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활동가 황선민주노동당 서울 시장활동가 등 국보법 폐지 촉구 발언과 통신비 밀보호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벌이며 벌어들여 보석 석방된 범민련 이경원 사무처장의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와 폐지 촉구 발언이 있었고 이어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발표해 "일제시대 차안유지법을 그대로 본 떠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악용된 국가보안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꿈틀대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몇 년간 현저하게 줄어든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가 이명박 장권 들어서서 급증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래공연에 이어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라고 적힌 연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 06

민주노총은 지난 4일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 등 노사정자가 복수노조 시행 2년 유예, 전임자임금 내년 7월부터 전면 금지기로 합의한 내용과 관련 영등포본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민주노총을 배제한 일개 정파와 모리배지도부가 철자적 상식을 짓밟고 강행한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난한다. 또한 "만일 야합한대로 시행된다면 이명박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착취와 노조말살을 위한 하나의 파괴적 무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힌다.

### 07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북, 미 양국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진정으로 북의 핵 포기를 원한다면 북이 요구하는 대북 적대 정책 폐기, 구체적으로는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핵무산 제기를 결단해야 한다며 또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북미관계 진전에 적극 호응해 남북관계를 회복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흐름에 힘을 보탬 것"을 촉구한다.

### 08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한국 지방재건팀(PRT) 보호를 위한 파병부대를 30명 수준으로 하고 장갑차량, 헬기 등의 무기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금주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프간 파병 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지휘부 및 본부, 경호, 경비대, 항공지원대, 작전지원대, 대사관, 경비반 등으로 편성되며 PRT 보호병력 310명과 대사관 경계 병력 10명 등 320명 내외이고 파병 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초 파견기간으로 2년 이상 명시한 이유는 PRT 임무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기 때문"이라며 "파견되는 우리군의 임무는 PRT 보호로서 PRT 임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 참여연대에서 68개 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아프카니스탄 파병동의안 국무회의 통과규탄 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아프간 파견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또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았다는 국민과의 합의를 어기고 아프간에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평화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다. 지역 재건을 돕는 재건팀이라면 왜 중화기로 무장한 특전사로 구성하고,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로 전투 헬기까지 함께 보내는가라며 결국 확실 전쟁을 댔다 침략 파병이라는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즉각 아프간 재파병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북의 관영 <조선중앙방송>이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전한다.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평양발 기사를 통해 보즈워스 대표 일행의 방북을 알리며 <조선신보>는 "일행은 10일까지 조선에 체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알린 뒤 "조미 사이 공식적인 양자회담은 오마마 장권 발족 이래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조선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조미 양자회담은 금후 정세발전의 추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대화로서 내외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고 하며 "조선측은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조미 양자회담을 통해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는 평화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 "조미 회담 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

다는데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보즈워스 대표가 이끄는 미 대표단에는 성김 6차회담수석대표와 마이클슈퍼 국방부 극동 담당부차관보, 대니얼 러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 찰스 루터스 NSC 비확산 담당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기록요원과 통역 등 수행원까지 총 7명이 동행 중이다.

☞ 여의도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은 700여 명의 소속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밀실야합 규탄, 민주노조 사수, 이명박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일 여성연맹, 민주일반연맹, 10일 화성·건설·서비스, 11일 보건의료, 12일 공공운수연맹, 15일 금속 등 산별연맹이 각각 의제별로 릴레이 집회를 벌이고 16일과 17일에는 1만 규모로 '1박 2일 상경투쟁'을 열고, 18일 '지역별 실천투쟁'을 거쳐 19일 '전국 동시다발 만중대회' 등으로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09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지방재건팀(PRT) 보호병력을 파병키로 한 한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d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탈레반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배포한 성명을 통해 한국이 파병할 경우 '나쁜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탈레반은 특히 지난 2007년 한국인 봉사단원 납치극 당시 인질을 풀어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은 아프간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다시는 파병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깨고 군대를 보낸다면 나쁜 결말을 준비해야 한다. 탈레반은 더 이상 부드러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낙성대만남의 집에서 송년모임을 참석하기 위해 일찍 길을 떠나신 고성화 선생님을 맞아 만남의 집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조순덕민가협 전의장 권오현 명예회장님 김호현모성영 임미영 함께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영양보신탕으로 점심을 나누다.

☞ 범민련 서울연합 소기수소문이 뇌출혈로 투병 중 이날 향년 73세로 별세하시다. 소기수선생님은 1986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시기 소년유격대 선전원으로 활동했고 그 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으로 옥고를 치루었으며 1999년 양심수후원회에 가입 2000년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에 가입 활동했으며 2004년 민자통 서울회의 의장대회 범민련 서울연합부의장 등을 역임했음 장례는 '통일애국지사 민족자주통일장'으로 9일 저녁 쌍문동 소재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추도식)을 갖고 10일 발인하여 전북 고창 선영에안장하기로 하다.

☞ 국회의원회관 1302호 정책간담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국민연대 민변 과거사정리위원회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공동주최 민주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후원으로 'MB정부 2년 -과거 청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과거청산평가 및 전망토론회가 열리다. 토론 화는 이덕우변호사 사회로 김영수 경상대사화와 학연구위원의 'MB정권과 과거청산의 변질과 해

론'이란 발제와 이영재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연구위원의 '과거청산의 현실과 민보 상위 9년 그 한계와 과제'란 발제가있었고 김동훈 진실화해위상임위원이병주계승연대 집행위원장 등 토론이있었음

☞ 한일병원 장례예식장에서 '통일애국지사 소기수선생 민족자주통일장'추도식이 진행되다 유족들과 민자통성원들을 비롯해 범민련 남측본부 통일광장추모연대 민주노총 진보연대 사월혁명회한청 양심수후원회 등 소속회원 40여명이함께 한 가운데통일애국의례에 이어 김명운 추모연대 공동대표의 약력소개, 감규철 호상의 추모시낭송, 노수회 장례위원장 김을수 민자통서울시회의 대표의조사, 이강실 진보연대대표의 추도사, 감규철호상의 호상인사말, 고인의 동생의 유족인사말, 노래국단 '화랑새'의 조가순서로진행 되었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의 헌화하는 것으로마치다. 김호현권오현

☞ 이복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조선에서 신형독감(H1N1)형 돌림감기(신종플루)로 인한 사망피해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속에 조선의 일부지역에서도 이 신형독감이 발생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보건성조사에 따르면 신의주와 평양에서 확진된환자가 9명'이라고 한다.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신형독감 비루스(바이러스)의 전파를막 기위한 검색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치료사업을 파고들고 있다'고 밝히다. <통신>은 '국가비상방역위원회에서는 각급 방역단위들과 치료 예방단위들의 역할을높이도록 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감시지점들을 더 늘렸으며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고 밝히다. 한편 이복에서 신종플루환자 발생소식에 대해 이명박대통령은 '인도주의차원에서조건없이 치료재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히다.

## 10

☞ 이복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및 접근을허용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원국들의 권고를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7일 북한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내용 및 북한 측 회신을토대로 이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북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한을인정하고 인권상황 점검을 위한 방북을 허용하라는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서방국가들의 권고와사형제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의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의 주민의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 등의 권고를거절했다. 반면 북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117개 권고사항-중에는 세계식량계획(WFP)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방북이 포함됐고,고문방지협정(CAT)과 인종차별철폐협정, 이주자권리협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 국제협약에 대한 일반적인 가입 여부 등도 열거됐다. 또 북측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보장, 국가인권기구 설립,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생사확인파 통신, 상봉 정례화등을 검토 대상에일단 포함시켰다.

☞ 종로참판공원에서 민가협 77회 목요 집회를 열다. 조순덕총무 사회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의장의 세계인권선언 61줄 의미와 이명박정부의

##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반인권행패 규탄발언,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활동가의 국가인권위의 반북단체 인권상수상 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개성공단발전을 위한 남북합동시찰단이 오는 12~22일까지 10박11일로 중국 청도와 소수 심청공단 베트남 연풍공단을 시찰하기로 이날 합의하다. 12일 북경에서 남북시찰단이 만나 13~14일 청도지역, 15~16일 소주지역, 17~18 심천지역, 19~22일까지 베트남 연풍공단을 시찰하기로 하다. 이번 합동시찰단 북측대표단을 백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10명이, 남측에서는 김영탁 상근회장을 단장으로 통일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관 10명이다

✎ 광주지역 원 갤러리에서 박종화시인의 서예산문집 '나의 삶은 커라' 출판 기념회-서예전시회가 열린다. 시인이자 민중가요 작곡가이고 가수이면서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의장인작가는 올해부터 통일뉴스에 서예산문을 연재한 바 있음. 광주민예총 류의남 음악위원장 사회로 흥변 범민련광주전남의장, 허연 광주전남 진보연대 상임고문, 박희재 원갤러리 원장 등 측사가 있었고 가수 김원중 화가 정희승 등 광주지역 예술인과 사회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했음. 전시회는 15까지 이어지고 16~22일까지는 서울인사동 라이트갤러리로 옮겨 진행 된다고 하다.

✎ 중국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 서울통일연대는 '세계인권선언 제61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포함한 5개 단체와 6명의 개인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통일단체들은 반북활동장려하는 반통일적 차사라며 이는 국가인권위가 세계인권선언인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반북활동의 예를 열거하며 북한인권의 의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을 하는 단체에 대한 인권상 수여 자체가 인권 의미와 가치에 흠타 칠을 하는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하다.

✎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스티븐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방북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6자회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또한 2005년 9월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다. 그는 방북기간 중 강석주목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부상 등을 만나 "북한 측과의 만남에서 저는 오바마대통령의 생각,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6자 프로세스의 근본적인과제라는 것을 전달했으며 비핵화의 진척이 없다는 것은 관계개선이 2005년 9월 공동성명 내에 다른 중요한 목표달성에도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히다. "평화협정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2005년 9월 공동성명의 모든 요소를 논의했다"며 "모든 요소 단 '비핵화 뿐만 아니라 평화체제 그리고 6자 당사국들간에 관계정상화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그는 또한 "북한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6자회담 당사자들간의 추가논의가 필요한부분 '이라면서' 국가

고위급대회논의는 없었다'고 밝히다. 한편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2박3일 동안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본국에 방북결과를 보고하고 서울에와 워싱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등을 만나 방북결과를 설명하다. 보즈워스는 11일 베이징 12일 일본 13일 모스크바를 거쳐 15일 워싱턴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11 -----  
✎ 이북의 <노동신문>은 논평원 명의의 논설을 통해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이광과 선의를 오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하다 논평원은 특히 통일부 현인택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민족 내부에 현인택과 같은 극악무도한 반통일분자, 매국역적이 있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이고 망신이며 비극"이라며 "현인택은 외세를 추종하여 대결을 추구하다가 민족의 버림을 받은 반통일대결분자들의 수치스러운 말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다. 논평원은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취해왔던 '선(善) 핵문제해결', '국군포로, 남북자문제 우선 해결' '민간 교류치단' 등을 조목조목 비난 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거론하며'남조선당국은 핵문제논의에 간섭할 체면도 자격도 실천도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국군포로 남북자문제와 관련해서는 'एंटी 리업는 그 무슨 명단까지 조작하여 내대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남북관계개선은 물론 인도적시업을 할 수 없다고 생억지를 쓰고 있다'고 비난하다.

✎ 제일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과 제일한국청년동맹(한청)이 9일 일본 도쿄 한통련사무실에서 한통련 간부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식여권 발급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송세일 한통련 부의장이 낭독한 항의문을 통해 "현정부 당국의 부당하기 짝이 없는 고국 자유왕래권 침해를 엄중히 규탄하고 항의하며 즉각 정식여권을 발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다"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의 지표인 우리의 고국 자유왕래권을 지켜내기 위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구사하여 현정부의 잘못을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무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파병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다. 이결의안은 권영길.조승수.유원일.장동영(무소속)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기갑.곽정숙.홍희덕.이정화(이하 민노).신진.유성엽(이하 무소속)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으나 최근, '이프간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된 민주당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3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파병지에 독단적으로 의사단을 파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파병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동의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부의 독단적, 독재적 행태"라며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의 즉각적인 제공과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중심이 된 재건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의 제공 등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다.

✎ 정부가 13일부터 1박2일간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6·15남측 위 인사를 중 한국 진보연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등 총 8명을 선별 불허하다. 통일부는 진보 연대 소속 6·15남측 위 이강실 상임운영위원, 한충목 조직위원장, 정대연 공동집행위원장, 최영옥 공동사무처장 등 4명과 김영만 경남본부 상임대표, 손미애(여성)·황철하(지역) 공동집행위원장, 잔농 전성도 사무총장(농민본부) 등이 낸 북한 주민 접촉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다. 통일부는 '원 남북관계 상황과 국가안 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선별 불허하다.

## 12

북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논평 '무엇을 노린 비무장지대 개발소 동인가'에서 남측 당국이 최근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통해 DMZ(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북측이 이를 "온 겨레를 경악시키는 또 하나의 반 민족적, 반통일적 추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이와 관련 사이트는 '민족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귀중한 강토의 일부분이 군사적 대결로 인하여 오랜 세월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 진정으로 가슴아파한다면 이곳에 선부른 '개발'의 삽날을 박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극의 근원을 제거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그 길이 바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또 사이트는 "남조선당국은 민족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를 '보존'이요, '유산'이요 하면서 동족대결과 민족의 영구분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온 겨레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그곳에 있는 콘크리트장벽부터 당장 허물어버리고 분열의 철조망을 걷어버려야 한다"고 하다.

서울 마포식당에서 민중당제원에 계신 한재용선생님 팔순을 맞아 통일광장선생님들과 사회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함께 하여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하고 만수무강을 빌며 저녁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건강하시 고통일되는 세상이 이루어질때까지 오래오래 사시길간절히 바랍니다.

## 13

종로 당주동에 있는 '지리산후배지' 집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009 회원 송년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열심히 활동해 온 60여명의 회원들과 먼저 제주에서 오신 고성화선생님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영광 노산 음성 속초 홍성 등 지방과 수도권에 계신 장기구급양심수들과 민가협유가협회원 인혁당관련 유가족들 남민 전유족들 양심수가족들 그리고 사회단체 관계자 등 17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양심수후원회 모성옹 부회장의 진행으로 애국의례에 이어 김호현회장의 모시는 말, 권인호 명예회장의 인사말, 회원의 선생님과 민가협어머님들께 드리는 송년인사를 읽었습니다. 송년모임방 벽에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전원 석방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 참가자 모두는 지난 한해 이명박정부의 반민생 반민주반통일행패를 규탄하고 새해엔 더욱 연대연합하여 심판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박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북녘산 들꽃술로 모두 잔을 채우고 한도숙 전농의장의 힘찬 건배제의로 모두의 건강과 자주통일세상 국가보안법도 양심수도 없는 세상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16명이나 되는 선생님을 대우, 경북양심수 후원회에서 모시고 와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양심수 후원회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다 캐나다에가서 열심히 일하며 양심수후원회를 알리고 있는 이득형양계숙부부 회원이 귀국하여함께했습니다. 아흔이 훨씬 넘으신 고성화, 박정숙, 이기형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참가자들은 뜻있는 시간을 마무리하며 크게 원을 그려 손에손을 잡고 "함께가자이 길을"을 합창하며 송년 모임을 마칩니다. 지면을 통해 양심수후원회를 늘 격려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이 내놓은 정성넘치는 후원금을 내놓아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말 바쁜 중에도 자리를 채워 즐거움을 함께 해주었던 회원들과 선생님들 또 여러 단체의 성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과주 무건리 직전초등학교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지지를 위한 500알자주인촛불문화제가 열리다. 최태식마을자각이사회로 오현리 촛불회 김종렬이르신의 여는 말 이규재법민련의장 한도숙전농의장의 발언에 이어사잇공연으로 부천평통사 노래패 '이어올림'의 노래공연,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사무처장 미군기지확장반대 행정대책위 김택군사무국장의 발언이 다시 이어지다. 진보연대소속청년들이 함께 가자!이길"을 합창하고마지막으로주병준 주민대책위 위원장의 결의 발언으로 마친 후다함께 운동장으로나가 풍등에 기원하는말을 적어 하늘에 띄워보내다.

## 14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구섭)주최 제3회 북한군사포럼에 참석한 이상의 합참의장은 포럼기조연설에서 "유사시 북핵 대비계획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있다"고 밝히다. 그는 유사시북핵 대비계획에 대해 "핵심시설 및 투발수단 타격계획과 적투발수단운용 시 공중요격 및 차단계획, 방호시설능력 확충 등"이라고 소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면서 군사적으로는 (한·미)연합감시자산을 운용하여 24시간 핵 관련 시설을 집중 추적감시하고있다"고 하다. 또한 지난 11월 '3차 서해교전'에 대해서도 "즉응태세를 평소부터 체질화해 온 결과로, 앞으로도 우리 군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자전적 경계작전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적의 감히 도발할 엄두조차낼 수 없는" 확고한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하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중국 상양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에 당국의 선별 불허한데 불복 6·15남측 위대표단과 함께 13일 상양에서 떠난 것으로 이날 알려지다. 이강실대표는 진보연대 홈페이지에 '정부당국의 선별 불허조치는 위법적이며 부당한 것이기에 출국을 강행한다'며 '정부당국의 부당한 북한주민접촉 불허에 단호히 불복함으로써 반통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에 조금이나마 재동을 걸고자한다'고 밝히다. 또한 '민간통일운동은 위촉시키고 6·15남측 위를 분열시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정부조치를 규탄하다.

중국 선양(상양)에서 13·14일까지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민족공동위)'가 열려 6·15남북해와측위가 토론을 거쳐 이날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다. 6·15공동 위원회는 6·15남측 위 김상근 상임대표

##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등 13명과 6·15북측위 안경호 위원장 등 10명, 6·15해외측위 박동의 공동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13,14일 양일간 회의를 가졌다. 6·15 공동위는 보도문을 통해 “6·15민족공동위 원회는 올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지주통일과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거래의 통일운동을 한자게 추진해온데 대해 함께 축하하였다”며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다방면적인 접촉과 왕래, 대화와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며,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민족공동으로 성대히 기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며 연대활동을 활성화하여 2010년의 역사적 의미와 주요계기들을 통일운동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아 나가기로 했다.

☞ 서울 조계사(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2009전국합동위령제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자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식전행사로 지난 일년 동안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행사를 촬영한 동영상과 박정옥 서도소리 이사장의 추모공연에 이어 상임대표 등 유족 임원들의 전통제례와 송기인 신부의 종교 집전이 있었음 유족을 대표하여 장준표 상임대표의 여는 말과 오원록, 이이화 상임대표의 발언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영조 위원장(설동일 사무처장)의 추모사가 있음 다음 마지막으로 유족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바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한국전쟁유족회는 위령제에 앞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500여 명의 유족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같은 요구 조건은 유족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뜻을 깊이 명심하고 이것을 통해 정부는 유족들의 마음을 이루만져주고 이 땅에 용서와 화해의 물결이 넘쳐 사회 대통합의 길로 가기를 바라노니 우리의 뜻과 의지를 가버이 여기지 말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수는 8,166건이고 이 가운데 5,867건이 처리되고 229건이 조사중(2009.11.30 현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 15 -----

☞ 경찰은 철도 파업과 관련 지난 13일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김정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했다. 또 철도공사도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수석부위원장, 장재영 사무처장, 임도창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각 지역본부장 등 10명을 파면, 백성곤 정책실장과 전상용 교선담당 집행부 2명을 해임했으며 880여 명의 철도노조 조합원을 직위해제 했으며 12일 현재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되고 있는 조합원도 450여 명에 달한다.

☞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주최 토론회에서 14일(현지시간)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 세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히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전 세계의 다른 곳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한편, 군사안보전문지(D&D FOCUS)는 12월호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실행 중이고 전작권이 환수되는 2012년이 되면 변환은 완료된다는 인식”이라고 전한 바 있다.

☞ 도렴동 통일부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주최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탄압하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실천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규탄했다. 통일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대해 “공익활동이 없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왔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를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자경 사무처장의 경과보고문정환 정책위원장의 항목별 주장 발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규탄발언 윤한택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었음.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의 아버지인 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 50여명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실천연대 기자회견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범민련 양심수후원회 등 주최로 123차 반미연대집회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개시하라! 미국의 침략전쟁 뒷받침하는 아프간 재파병 중단하라! 방위비분담금 불법 운용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 위한 ‘4자대화’를 미국에 촉구하다. 김현영 사무처장(평화재향군인회)의 사회로 범민련 이규재의장의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촉구 발언,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모성옹부회장의 아프타니스탄 재파병 중단 촉구발언,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장의 불법적 방위비분담금 지불 중단 촉구발언에 이어 인천 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의 ‘동두천 미군기지 계속사용’ 관련 현안보고가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로 부산평통사 김홍술대표의 요구서한 낭독으로 마무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6·15칠천단이 마련한 기금 4천 8백만 원으로 이북의 7개 유치원 학생 1천여 명에게 1년 동안의 쿵우유급식이 가능한 재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이 되는 7개의 유치원(동문 1, 2유치원, 북수 1, 2유치원, 문수 1, 2유치원, 창광유치원)은 전교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07년과 올해, 각각 지원한 쿵우유 기금 8대가 이미 보급된 곳이다. 이번에 지원될 쿵우유 재료는 ‘우리거래하나되기 운동본부 쿵우유사업본부’를 통해 12월 말 재료를 사들여 중국 단둥을 통해 1월 중으로 전해질 계획이며, 실무자를 파견해 쿵우유 재료를 직접 검수,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교조는 밝혔다.

## 16

☞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이른바 '일십회' 사건의 장민호님과 최기영님 그리고 범청학련의장 윤기진님을 차례로 면회하고 대구로 출발하여 일십회 사건의 순정목님을 면회하다. 수업을 멋지게 거든 장민호님과 늘 밝은 기운으로 면회온 사람을 기운나게 하는 최기영님은 같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한달여 전에 출소하신 이진강님과 속내 이야기를 나누며 동지애를 나누다. 또 윤기진님은 보고싶은 아이들 용산과 쌍차과업관련 구속노동자들에게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다.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순정목동지는 소내 차우문제에 대해 면회거부투쟁을 끝낸 직후 우리를 맞아 밝은 표정과 낙관적인 태도로 지속되는 감옥생활의 고통을 이기고 있었음. 이진강 변의성임미영 함께 하다.

☞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자 해설 기사에서 민족문제란 자주성을 실현 옹호하는 문제' 라고 규정하고 그 해결의 기본방도는 '민족대단결' 이라고 답하다. 그 이유로는 '민족대단결만이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민족문제를 완전하고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 여의도 민주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민주노총은 48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복수노조 즉각 시행, 전임자임금 노사지을 결정을 골자로 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결정하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총파업 결의의 간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20여 분만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완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 결의문을 통해 △노조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친 재벌 정책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노동자 서민 민생예산 쟁취 △노동자서민 다 죽이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 심판 투쟁을 결의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를 1차 전 조합원 총력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노조말 살عه동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방침' 을 확정하다.

☞ 북의 <노동신문>은 '지체없이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세계 면전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 을 제창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량으로 보나, 세계 도처에 수많은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나 미국은 오히려 핵군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이어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된 입장으로,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미국은 저들의 '핵무기 없는 세계건설'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 앞에 실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다.

☞ 경기도 여주군 이호대교 부근에서 북한기 훈련 일환으로 강을 건너 복진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대북 공격훈련인 기계화 부대 대규모 도하작전이 실시되다. 이날 오전 진행된 도하작전에는 케도차량 500대, 일반차량 800대, 병 1만명 등 육군 20사단 전체가 동원되고 최근에 아전 배치된 K21전투장갑차 8대도 실전에서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오후부터는 부교를 구축해 후속부대가 보다 빠른 기동으로 강을 건너 뒤 공중강습부대와 연결작전을 전개하다. 육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을 '결전작전' 이라고 명하고, 그동안 작전계획 토의와 지휘통제기구 훈련, 축소 지형훈련 등 훈련 준비에 만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북 공격훈련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다.

## 17

☞ 일본의 <교토통신>이 16일(현지시간) 파리발로 보도한 기사를 통해 프랑스가 북에 상설 사무소개설을 제안하고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사르코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던 자크 랑 의원이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해, 문화나 언어교육, 농업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상설 사무소를 평양에 개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회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 이라고 밝혔고 하다. 한편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프랑스가 제안한 평양 문화협력 사무소 개설에 이를 동의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통신>은 "프랑스측은 대통령특사의 조선방문 결과에 따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평양에 프랑스 협력 및 문화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을 통보해 왔었다"며 "우리는 프랑스와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려는 입장에서 사무소개설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 종로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80회 목요 집회를 열다. 조순덕 총무 사회로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 말, 임기란 전상임의장의 양심수석방촉구발언, 조성용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사면촉구발언 등이 있었음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프랑스가 제안한 평양 문화협력사무소 개설에 동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하다. 통신은 "프랑스측은 대통령 특사의 조선 방문 결과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로서 평양에 프랑스 협조 및 문화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을 통보해왔다"며 "우리는 프랑스와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려는 입장에서 사무소개설에 동의했다"고 전했다고 하다.

## 18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하다.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친서를 조선을 방문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조선정책 특별대표가 9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다.

☞ 통일부는 경의선유로를 통해 신종플루 치료제 5만명분을 북측에 전달하다. 김영일통일부 인조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단 9명은 타임플루 40만명분과 리젤자 10만명분을 실은 냉동트럭 8대와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개성 봉동역에서 인도하다. 남측인도단은 통일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과 의사 2명 약사 1명으로 구성하다.

## 19

☞ 북을 방문 중인 미국기업대표단이 북미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 이런 일이 있었어요

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전직 미국 공군 장성인 찰스 보이드 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ENS)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단장으로 한 미국 기업가대표단은 보이드 단장이 주체사상탑을 참관하고 감상록에 “미·조(북)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글을 남겼으며 또 “앞으로 전쟁 재발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쌍무경제관계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 서울역 광장에서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반MB 공투본)’ 주최로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반전평화실현 이명박 정부 2년 심판 전국민중대회 를 열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김덕엽 ‘아프가니스탄과병반대 연석회’의 기획담당 경기도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 김경순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등의 규탄 발언에 이어 참가자들은 이강 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공동 낭독한 결의문에서 “민생을 최악으로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마구 파괴하며, 평화와 통일을 끝없이 짓밟는 괴물 대통령 당선 2년을 맞아, 온 국민의 불타는 노여움을 모았다며 △4대강 예산 저지 및 일자리민생·복지예산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민주노조 사수강화 △아프가니스탄 파병 저지 △언론악법 폐기, 용산참사 해결, 세월대란 해결 △반노동, 반민생, 반평화 악법 날치기 통과 저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

☞ 유엔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총회를 열어 북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한인권 결의를 공식 채택하다. 이날 표결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99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20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69개국은 기권했다.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 존중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6·15한미음통일산악회의 12월 산행이 있었음 모두 20명이 사직공원에 모여 인왕산길변바위인왕산정상(339.9m)에 이르는 바위산인왕산을 등정하다. 올해 마지막산행에 대한 추평 노중선 권오현 공동산악회장의 인사말을 하다. 김재선 산악대장에게 올해 산행개근상을 주기로 하다.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 중턱에 있는 전 민족인보 조용수수장묘소에서 ‘조용수 전 민족일보사장 48주기 추도식’이 열리다. 고인은 박정희군사쿠데타세력에 의해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 언론 등 일제 탄압국면에서 체포되어 간첩혐의로 자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하고 북의 활동을 동조했다 해서 당시 군사혁명재판에서 사법살인당했고 〈민족일보〉는 폐간당했음. 2006년 11월 8일 진실화해위에서 재심권고를 받았고 2008년 1.16일 재심에서 47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음 추도식은 박석률 전민자통상임대표 사회로 경향신문 원희복기자의 약력소개 감병태

한국농정신문 상임고문과 재일민족일보포럼 관계자인 재일동료 임영웅씨 등의 추도사 고인의 아우이신 조용준선생의 유족인사말 참가자들 현화하는 것으로마치다

☞ 미국의 재무금융 범죄단속반은 18일(현지시간) 이른바 ‘북한정부기관과 기업들의 불법 금융행위개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문에 포함된 이북은행에서 새로 〈금강은행〉을 추가하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별도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북의 여러 은행과 기업들에 부당 불법적으로 제재를하는 형태이다. 미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권고문에서 이북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후 신분을 감춘 차명거래와 제3자를 통한 자금이나 반복적인 계좌이체 등 변칙 위장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금융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한바 있음

☞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9일 (현지시간) 인터넷 판에서 “감대 중전 대통령을 비롯 올해 세상을 떠난 정치인 재계인사 학자 등 저명인사 36명이 세상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히지 않을 업적을 남겼다”며 이들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밝히다. 이 잡지는 감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90년 가까이 아련지도지로서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망명과 투옥 납치 암살 위협 등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며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남북화해를 위한 증진시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고 평가하다.

## 21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올 한해를 ‘총화’하면서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며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대혁신, 대비약으로 사회주의지립경제가 거대한 용을 쓰고 있다”고 선언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영도 따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올해에 특기할 기적을 창조했다면서 ‘올해에 특기할 기적’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먼저,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의 성과적 발사 △태양철과 5.1절, 당창건기념일에 즈음해 펼쳐진 대규모 축포야회를 들었다. 과학 공업 분야에서는 △첨단을 들과한 CNC기계공업 △KCC바둑 프로그램이 국제퓨터바둑경기대회에서 또다시 1등을 차지한 것 △100% 주체철에 의한 철생산 공정이 확립된 것 △마그네사이트가 공업의 주체화가 실현된 것 △회천발전소건설장에서 ‘회천속도’가 창조된 것 △그리고 대규모 냉원발전소 완공 등을 들고 “인민생활 향상에서도 일대 비약이 일어났다”고 알렸다고 하다. 농업 분야에서는 △대게도 간석지개간공사로 새로운 부침땅이 마련된 것 △황해북도 곡산군과 신계군의 수백리 구간의 자연호름식물길 완공을 비롯해 △대동강과 수종합동장 △만수대거리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 △마천호텔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통신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발전에서도 일대 변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지난 6월 조선축구선수들이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쟁취하였다”고 덧붙인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제69차 전원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 237필지 562,555㎡(약 17만

평)에 대해 국유 재산으로 귀속 확인을 결정했다고 밝히다. 대상 토지는 광주광역시, 경남 밀양시, 김해시, 합천군, 전남 고흥군 등에 있고, 해방 당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해방 이후 마둥기 또는 등기부상동양척식주식회사로 남아있던 토지였다. 특히 귀속대상 토지 중 44필지(35,934㎡)는 낙동강 유역에 있는 것으로 일제가 1930년대 낙동강에 수문을 설치하고,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당시 조선총독부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친일 재산조사위는 밝히다. 그동안 친일 재산조사위 조사를 거쳐 귀속 재산 확인 결정된 일본 인명의 토지는 조선총독부 명의 토지 등을 포함해 1,672필지 1,925,747㎡(공시지가 296억 원, 58만 평)이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가 북측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조선 군부 호전행위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응하여 우리 해군은 아군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우리의 해안 및 섬 포병구분대들의 평시 해상사격 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 1999년 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를 통해 새로운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구역'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 선언에 따르면 북측 군사통제구역의 기준은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과 남측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 점 △북측 웅도와 남측 서격열비도, 서업도 사이의 등거리 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 반분점과 교차점 등이다. 이날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조선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하다.

☞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프가니스탄 전투병 재파병 동의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히고 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이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파병 동의안에 대해 국회 심의 절차를 줄속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다.

## 22 -----

☞ 미국과 일본 간 핵 밀약 문서가 사토 에이사쿠(佐藤 榮作) 전 일본 총리 유족의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전하다. 양국 간 핵 밀약은 1964년 양국 안보조약 개정 시 일본 국내로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때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영공 통과 등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 밀약은 이후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해 온 것으로 이번에 발견된 문서는 1969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사토 전 총리와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극비리에 작성한 '합의의사록' 실물이다. 문서에는 미국이 "일본을 포함한 극동 제국 방위를 위해 중대한 긴급 사태가 생길 경우는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한 뒤 핵무기를 오키나와(沖縄)에 다시 반입하며, 오키나와를 통과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오키나와의 핵 반입

을 양정상이 합의했다고 기록돼 있다. 기록에서는 '일본측은 그런 사전 협의가 있으면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한다'고 했고 '미국 정부는 중대한 긴급 사태에 대비해 오키나와에 현존하는 핵무기의 저장에 즉가네나, 해군기지 등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음

## 23 -----

☞ '쌀 대란 해결'과 '대북쌀지원 재개 및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국 농민들의 '나락 작제 시위'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다. 서울 여의도 KBS신관 본관 앞을 합법적인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는 차량을 경찰차량이 끼어들며 20여 명의 경찰이 나락 10여 기가마를 나눠 싣은 트럭 3대를 에워싸고 운행을 막아사다. 이 트럭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열릴 '쌀 대란 해결! 대북쌀지원 재개! 농업개혁 농민대표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잔다도 등지에서 22일 밤부터 나락을 싣고 올라온 차량들이다. 당초 주최 측은 이 나락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적재하고, 전국 농민대표자 20여 명과 함께 농민대표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억류된 차량이 있는 (KBS) 본관 앞에서 약식 집회로 대신하다. 농민들은 이날 농민대표자대회 결의문에서 "임기응변식 정부의 쌀 대책으로 인해, 2010년에는 더욱 심각한 쌀대란이 기다리고 있다"며 "가장 확실한 시장 격리책인 대북쌀지원 재개는 가장 확실한 쌀 대란의 해결책이며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다.

☞ 후원회소식 218호 최종 교정기획사에 넘기다. (임미영권오 현)

☞ 광운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2009년 송년모임이 있었음 6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송년과 새해를 맞는 결의 시간을 가진 뒤 통일 퀴즈와 오락 등 친선단합의 시간을 함께 하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격려말이 있었음

☞ 6·15남측위가 지난 9월과 12월 6·15북측위와의 실무 접촉에 참가하기 위해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태와 관련 정대연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등 6·15남측위 소속 9명이 22일 남북교류협력법이 통일부장관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 남용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었다 '며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다 소장에서는 거부처분통보가 하루 직전에 되어 있어 항공권 및 숙소예약 최소 수수료 등의 경제적 피해와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자로 잘못된 낙인을 받았다면서 두 차례 거부처분을 받은 정대연 씨 등 3명은 200만원과 한차례 거부당한 한충목씨 등 6명은 1000만원을 각자 지불할 것을 요구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개굴이네집'이라는 인터넷 필명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규(6)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씨는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김일성 회고록 『제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소지와 재미 친북학자들의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양 씨 측

##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은무죄를 주장했고 검찰 측은 집행유예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항소했음.

☞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3년제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마이클 장(47, 한국명 장민호) 씨의 누나 화옥(53) 씨는 "미국은 세계의 반인권법 국가보안법 철폐요청하라!"며 1인 시위를 하다. 그러나 종로경찰서 관계자들은 미대사관 인근 한국통신(KT) 건물 쪽으로 나가서하라며, 법 규정에대한 설명도없이 병력을동원해 장 화옥씨를 밀어내다. 화옥씨는 "미합중국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 자국민구속 수감된데 공식적인 입장 밝히야한다고 요구하다. 장민 호씨와가족들이 벼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 정부에일심회 사건의핵심문제 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과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않는 이유를묻는 탄원서와 질의서를 보낸 지 벌써 4개월이지났지 만, 미대사관 쪽으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직전 장화 옥씨는 일인시위를 하기 전 미대사관 쪽에 장씨와 일심회 사건 관련자 가 족들의명의로 된 서한에서 "지난 7월 8일 영상면담을 통해 본국에들이가 전달하고 바로 답변을 주겠다고 했으나 그날 이후 무반응,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다"며 "미국은보편인권과 미합중국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 국가 보안법으로 자국민이 구속 수감된데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 며 "개인의 정경과 사상에따른 차별이 없이, 마이클장 연관 사건에대해서 도 인도적, 인권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하며, 여기자 사건과 마찬가지로 석방탄원을 요청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다. 구체적으 로 △UN이 폐지를 권고한세계적 반인권법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 지하는가 △수사과정에서 협박 공갈과 불법적 피의사실 사전유포의 인권 유린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인 두 여기자사건과 이중적기준을 갖고 처리하는 이유는 △자국민 안전과 인권 문제를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 되는 조치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공식입장은 등의 질의를 했다. 이날 일인시위는 지난 10월 만기 출소한같은 사건 이정훈남과 부인 구선옥님이 함께 했음

## 24

☞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용산범대위, 민주노총 등 여러단체 공동주최로 '부정비리 범죄자 이진화등 사면방침철폐와 양심 수 석방촉구 기자회견'이 열리다. 모성용 양심수후원회 부회장의 사회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말에 이어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 원장, 이경원 범민련 사무처장,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수감중인 용 산4구역 절거민대 채위 이충연 위원장 부인 장영신씨, 김성환 삼성일반노 조 위원장의 규탄발언이 있었고 이영 민가협상임의장의 기자회견문 낭 독이 있었음. 회견문에서는 부정비리 범죄자 이진회전삼성재발총수 등 사면방침 철폐와 양심수전원석방사면복권을 촉구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영민가협상임의장과 권오현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청와대로 항 의서한을 전달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81회 목요 집회를 열다. 이영상임의장 사회로 임 기간 전 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이명박정권 의 부정비리경제사범 사면방침규탄과양심수사면촉구발언 이규재법남본

의장의국가보안법폐지촉구발언 등 이 있었음

## 25

☞ '용산참사 현장'에서 천주교서울대교구 반민사목위원회가 '용산참사회 생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대축일 생명평화미사'를 올린다. 용산참사유족 들과 범대위일꾼들 반민사목위 부산교구와 인천교구신부님들 천주교정 의구현전국사제단 문정현, 전종훈신부님 등 21명과 신도 등 700여 명이 함께 하다. 남해운 서울대교구 사회복지부반민사목위원회 무악동성당본 당신부의 강론이 있었고 구유경배와 함께 참사로 목숨을 잃은 5명의 철거 민을 위한 조문예절도 진행하다 이어 오후에는 같은 현장에서 한국기독교 협의회(KNCC),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 등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7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고난반 는 이들과 함께하는 성탄예배 가 열리다. 권오성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총무)는 성탄 메세지에서 "아름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경제위기와 용산참사, 비정규직 양산 또 4대강 논란 등으로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탄식과 절망이 성탄의 축복으로 거두어지길 기도한다"며 "무엇보다 성탄 을 맞이하여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다. 성탄예배준비위원회는 성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중의 이름을 씻어주시길 것을 믿는 믿음이 선포되기에 가능한 것이다"며 "이명박 정부는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하며 가진 자 중심의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다.

☞ 일본문부과학성은 '고교역사지리 학습지도요령 개정해설서'에서 '중학 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 거해 적합하게 취급한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고 명시하여 독도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다. 중학교에서의 학습은 지 난해 7월 개정된 사회과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서 '우리나라(일본)에 대 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 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음 따라서이번 고교역사지리 학습지도요령개정해설서도 '독도 라는 이름만 뺏을 뿐 이 섬이 자들의 영토라고 주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그런데정부에 서는 이에 관해 우려와 유감을표명하는 미온적태도를 보이고있음

## 26

☞ 스테판 듀자릭 유엔 개발계획(UNDP)대변인은 25일 (현지시간) 미국의 소 리(VOA)에 출연해 지난 9월 평양사무소 건물보수를 끝내고 개소식을 한 후가구를들이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사무리작업을 하고 있다 "며"내년 2월 말에는 완전히 정상 업무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밝히다. 지난 2007년3월 중단된 지 2년만이다. 1분기 내에 시작될 사업은 농경에너지지 원 농업 생활품공급 통계자료수집 인적자원개발 등 250만달러라고 하다. 제품소비수 UNDP 평양사무소 대표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식량농업기 구(FAO) 세계식량기구(WFP) 등 이북주체 유엔기구를 대표하는 조정사무 소 역할을 한다.

☞ 조순덕 민가협전상임의장의 둘째 아드님 위정보님이 신부 박현아님을 맞

아 잠실 교통회관예당홀에서 부모님과 친지들과 많은 사회단체성원들의 축복을 받으며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두분의 한 가정 이루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7

☞ 민주노총은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합의하라는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도부 집단 단식과 30, 31일 총력 투쟁을 선포하다. 이날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노동법논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조직 내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이 법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을 노동법 관련 각 주체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8일 일원과 산별대표자들의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 30, 31일에 여의도에서 노동기본권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전국 단위사업장 대의원 이상 간부들이 집결해 진행한다.

## 28

☞ 이복의 <로동신문>은 반공화국 대결정책의 전환은 시대의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정책이 끝장나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하다. 이 신문은 "남조선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족대결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도전해 나갔다"고 주장하고는 남측 당국의 반북대결정책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지적하고 그 첫째로 "동족에 대한 적대관념의 뚜렷한 발로"이기에 "동족을 적대시하는 것은 한 핏줄을 나눈 민족을 화해와 단합의 대상이 아니라 대결과 침략의 대상으로 보는 반민족적인 태도"이다. 둘째,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근원"이라면서 그 일례로 '비핵, 개방, 3000'을 들었다. 셋째, 신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인민들의 연복통일 지향을 무자비하게 억누르면서 조국통일운동을 방해하는 기본 요인으로 되고 있다"면서 그 예로 남측 당국의 남북교류협력의 차단을 들었다. 넷째, 남측 당국의 반북 대결정책은 '6·15통일시대의 흐름과 북남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온 겨레의 지향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면서 "그 무슨 대화'와 '진정성'에 대해 떠드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지금 온 민족은 북남관계가 진정한 동족사이의 관계로 전환되어 새롭게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그러자면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의 과국을 초래한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다.

## 29

☞ 이복의 <노동신문>은 '전쟁열에 들뜬 자의 도발소동'이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다음해 6.25를 계기로 전례 없는 규모의 반공화국 행사계획을 짜놓고 그것을 공개하며 법석대는 것부터가 심히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신문은 6.25에 대해 "미제가 청소한 우리 공화국(북한)을 요람기에 집어삼키고 북과 남의 우리 민족 모두를 노예화하기 위해 조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날"이라며 "그런데 우리 겨

레의 피로 두 손을 물들인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살인마들에게 '위로연'을 치러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자들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6.25 60주년을 계기로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문은 "국방 지침이란 것은 본질에 있어서 '방위'의 간판 밑에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위험한 침략문서"라고 비난했다고 하다.

☞ 이명박정부는 이날자로 이진희 전 삼성그룹회장 한 사람을 특별사면특별복권조치하다. 지난 8월 14일 배임과 조세포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지 4개월만의 변칙사면이며 사회정의와 법치에 배치되는 대통령사면권의 남용 행태였음

☞ 여의도국민은행 앞에서 4대강죽이기사업저지범대위, 2010예산안공동대응모임, 반MB공동투쟁본부, 이프간과 병반대연석회의, 시민주권모임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공동으로 '4대강저지민생확대노동탄압중단 72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등 날치기에 대비해 연말까지 비상국민행동에 들어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공동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 반병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4대강범대위 김종남집행위원장 한도숙 잔능의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이규재범남본의 72시간비상국민행동선포문을 낭독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국회 안에서 등록금 상한제 쟁취 등과 관련한 농성이전제되고 있고 장애인단체들의 예산증액 촉구 농성, 환경시민단체들의 4대강 죽이기 예산 폐기 농성, 노동자들의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농성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에 우리 국민들을, 대학생들을, 장애인들을, 노동자들을 농성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환경파괴와 막대한 혈세 낭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사업 강행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72시간 비상국민행동에 돌입한 단체들은 이날 오후 7시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여의도공원 천막에서 2박 3일 간의 밤샘농성에 들어간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법 개악안 등 저지를 위해 이미 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 전교조 등 여의도문화마당농성장을 방문하고 임성규 정진후 위원장 등을 격려하다.

☞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앞에서 용산범대위 주최로 '용산살인진압희생자장례식 및 향후진상 규명에 대한 범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회견에서는 범대위와 서울시층이 •정운찬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 유가족들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재개발조합측이 유가족 위로금과 용산철거민피해보상금 장제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이번 합의내용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고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장례는 2010년 1월 9일에 치루고 서울시와 용산구청 종교계에서 각 3명 용산범대위에서 1명으로 하는 이행위원회 구성 이번 합의이행을 담보하기로 하다. 유족들은 '이 합의가 공식타결이라 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구축자가 석방될 때까지 장례를 치른 후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하다. 한편 정운찬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참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농성자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우리 시대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일'이라

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족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은 위로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다.

✎ 이복의 <로동신문>은 '콘크리트장벽의 해체는 절박한 민족사적 과제'라는 제목의논설에서 남측에서 콘크리트장벽을 쌓은 지 30년이 된다면서 이를 제거하자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이 신문은 "콘크리트장벽은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민족분열 영구화 책동의 산물"이라면서 콘크리트장벽이 1970년대 구축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즉, "이 시기로 말하면 민족분열사상처음으로 북남사이 대화의문이 열리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가운데 이그는 때보다 늦은 때'인데, 이에 불안을 느낀 미국이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부추겼으며 남측의 "유신 독재자는 7.4공동성명을 백지화하는 6.23특별성명'을 발표하여 '두개 조선' 조작을 공공연히 정책으로 선포'함으로써 "1977년부터 방대한 자금과 노력, 자재를 들이밀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콘크리트장벽을 쌓았다"고 주장하다. 신문은 "지금 남조선 집권세력은 북남대결의 장벽을 더 높이 쌓고도그 무슨 '상생, 공영'이니, '진정성'이니 하며 마치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이 광고하고 있다"면서 "반일 그것이 진심이라면 남조선당국은 콘크리트장벽과 '보안법'을 비롯한 북남대결의 장벽들을 제거'해야 하며 아울러 "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폐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다.

### 30

✎ 1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을 지냈던 송효원 전홍익대총학생의장이 경찰에강제연행되다. 송효원의장은 2005년, 13기 한총련의장을 지냈다는이유로 지난 4년 간 수배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음. 목격자들은 연행과정에서도 "경찰에 의해 (송 씨의) 옷이 들려 속살이보이고 옷이 찢겨졌다"고 전하며, "여성을 연행해갈 때는 분명 여성 경찰이 연행을 해야 한다. 또한 어디서 나왔는는 물음에 자신의 소속과 관동성명을 분명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마구잡이로 잡아간 것은 명백한 납치"라고 주장하다. 한총련도 31일 성명을 내고 송효원의장은 13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면서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학우들의 생활적문제에서부터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 등 사회의 근본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앞장에서 투쟁을 펼쳐온 애국청년학생이라며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이시대를 살아가는 정의와 양심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라며 송씨의 즉각적인 석방을요구하다.

### 31

✎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강 저지 민생예산확대 노동탄압 중단 72시간 비상 국민행동' 주최로 '대강 예산안노동법 개악안 날치기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이날 새벽 4대강 죽이는 것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이 예결산회의 실이 아닌 국회본청 2호실에서 기습날치기처리되고 본회의에서 직권 상정강행처리가 예상되고 있었음 이강실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4대강 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 민주노동총부위원장 오병문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등

규탄발언과 권오현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 종로 탑골공원에서 민가협 82회 목요 집회를 열다.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한해를 마감하는 마당이어서 민가협어머님들 장기수선생님들 범민련성원들 양심수후원회에서 이전보다 많이들 참석하다. 새로 사무국장으로 온 김동순 사무국장 사회로임기란 전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의 이명박 정부 1년의 반민생반민주 반통일 태도와 특히 양심수를 가둬두고 부정비리 범죄자 이견회를 사면복권시킨 대통령의 사면권남용을 규탄하다. 마지막으로 박영옥 회원이이견회 전상성그룹회장 사면규탄성명서를 낭독하고 마치고 조순덕 총무님이 아드님 결혼 뒷인사로 낸 떡과 고기로점심식사를 하다.

✎ 국회에서는 이날 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일부무소속의원만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202조 815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직권상정 정부안보다 1조원을 늘려 24분만에 날치기 처리하다. 이보다 앞서 오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4당이 접거농성하고 있던 예결위 회의실아닌 본청 2호실에서 예결위를 열어 예산안을 기습상정 날치기처리하다.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날치기처리라는 예산부수렴안처리 이전에 예산심사를 금지한 세입예산사 전심사금지(국회법84조)규정을 어기고 변칙처리하여 원천무효 논란을 일으키다.

✎ 국방부는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 안보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국민의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부, 교과부, 문체부 등과 병정부 차원의 안보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내년도 6.25전쟁 60주년을 호국안보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안보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불구하고 현재 5주인 신병 양성교육기간을 8주-10주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사단의 신병교육대를 증설하겠다고 하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한선진군사역량구축 △강도높은 경영 효율화로 예산 절감 △교육훈련체계개선으로 현존 전투력 극대화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로변한 △국민 편의를 위한 효율적 군사시설 관리 △국방외교, 협력의 외연 확대 △녹색국방과 에너지절약 등 7대 중점 추진 과제를제시하다. 합동업무보고에서는 통일부의 2010년 3대 전략목표 '와 이를 위한 9대중점추진과제를 밝혀 반통일부임을 그대로 드러내다 (후원회소식218호보심)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범민련 공동사무국 방응사무부총장에게 범민련기관지 '민족의 진로' 4월호를 100호를 보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을 불구속 기소하다. 검찰이 '북한공작원'이라고 하는 박용 사무부총장은 2005년 8·15대회 때 정부의신변보장을 받고 서울을 방문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는 등 두 차례나방문한 바 있음

# • 2009년 12월 재정보고

단위:(원)

| 입금내역  | 입금 총액      | 10,694,742 |
|-------|------------|------------|
| 지 로   | 660,000    |            |
| 씨엠에스  | 2,825,000  |            |
| 국민은행  | 1,050,000  |            |
| 농 협   | 835,000    |            |
| 제일은행  | 70,000     |            |
| 하나은행  | 150,000    |            |
| 현금입금  | 3,745,000  |            |
| 유가증권  | 230,000    |            |
| 이 자   | 370        |            |
| 차 입 금 | 1,000,000  |            |
| 입금 합계 | 10,565,370 |            |
| 전월 이월 | 129,372    |            |
| 총 액   | 10,694,742 |            |
| 지출내역  | 지출 총액      | 10,657,370 |

|                               |           |
|-------------------------------|-----------|
| 가. 양심수관련 .....                | 1,461,720 |
| 양심수 영치금, 민족2, 소식지 발송, 면회 사업 등 |           |
| 나. 출소장기수 지원 .....             | 1,605,280 |
| 만남의집 운영비, 출소장기수 관련 지원         |           |
| 다. 소식지 관련 .....               | 1,027,340 |
| 소식지 발행, 발송 및 발송작업             |           |
| 라. 사무국 활동비 .....              | 1,800,000 |
| 상근일꾼 2명의 활동비                  |           |
| 마. 연대사업 .....                 | 322,000   |
| 전민특위 진보연대민가협 용산범대위 투쟁사업장 지원 등 |           |
| 바. 교통·통신비 .....               | 339,460   |
| 교통통신비, 전화, 인터넷사용료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           |
| 사. 회원사업 및 운영비 .....           | 930,070   |
| 회원경조사비, 회비이체수수료, 홈페이지운영 등     |           |
| 아. 특별지출 .....                 | 3,171,500 |
| 송년모임                          |           |

|        |                                                                 |
|--------|-----------------------------------------------------------------|
| 차기 이월액 | 10,565,370(당월입금)+ 129,372(전월이월금)-10,657,370(당월지출) = 37,372원(잔액) |
|--------|-----------------------------------------------------------------|

열심히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로로 회비를 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은행 납부시 지로응지에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을 확인할 수 없어 소식지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를 내주신 분들

2009년 12월

♣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                                   |                                  |                        |                               |                 |
|-----------------------------|-----------------------------------|----------------------------------|------------------------|-------------------------------|-----------------|
| 강대옥 <sup>11.12</sup> 20,000 | 김순자 10,000                        | 박강혁 10,000                       | 신귀영 10,000             | 이경도 10,000                    | 정관호 10,000      |
| 강덕환 20,000                  | 김영산 10,000                        | 박귀영 10,000                       | 신동숙 100,000            | 이계환 10,000                    | 정길상 10,000      |
| 강덕환 20,000                  | 김영수 30,000                        | 박길용 100,000                      | 신용식 10,000             | 이기옥 50,000                    | 정만기 5,000       |
| 강순례 10,000                  | 김영식 10,000                        | 박대권 10,000                       | 신현익 50,000             | 이기옥 50,000                    | 정명숙 20,000      |
| 강순희 50,000                  | 김은 10,000                         | 박동수 10,000                       | 심재환 100,000            | 이동근 30,000                    | 정명희 10,000      |
| 강순희 유정숙 류승옥 1,000,000       | 김은희 10,000                        | 박상은 200,000                      | 송미경 20,000             | 이동현 <sup>(11.12)</sup> 40,000 | 정상원 10,000      |
| 강응길 10,000                  | 김인순 10,000                        | 박선후 10,000                       | 시윤정 윤도윤 30,000         | 이두화 <sup>(12.1)</sup> 70,000  | 정향숙 10,000      |
| 고재형 10,000                  | 김재선 20,000                        | 박세용 5,000                        | 신미순 20,000             | 이득형 20,000                    | 조순덕 10,000      |
| 고재현 20,000                  | 김재원 10,000                        | 박수분 10,000                       | 심주이 10,000             | 이득형 양계숙 70,000                | 지명순 20,000      |
| 고춘식 20,000                  | 김재울 5,000                         | 박숙현 100,000                      | 심창용 30,000             | 이명국 5,000                     | 정미연 10,000      |
| 공진하 20,000                  | 김재현 5,000                         | 박영만 5,000                        | 안관혁 10,000             | 이문상 50,000                    | 정은 20,000       |
| 구본승 5,000                   | 김재현 20,000                        | 박원주 10,000                       | 안동석 5,000              | 이미선 5,000                     | 정종만 10,000      |
| 구선옥 이정훈 50,000              | 김정라손정목 20,000                     | 박유경 50,000                       | 안샘 40,000              | 이병건 20,000                    | 정형근 10,000      |
| 국승용 10,000                  | 김정현 5,000                         | 박유미 <sup>(10.11.12)</sup> 30,000 | 양득술 10,000             | 이봉로 10,000                    | 정혜은 10,000      |
| 권기덕 10,000                  | 김제성 10,000                        | 박은영 20,000                       | 양호철 10,000             | 이봉재 10,000                    | 정훈철 10,000      |
| 권기순 10,000                  | 김제영 5,000                         | 박재만 10,000                       | 양민례 10,000             | 이상희 10,000                    | 정훈철 20,000      |
| 권미경 20,000                  | 김종명 10,000                        | 박점식 200,000                      | 이광연 20,000             | 이석림가족 100,000                 | 조규승 20,000      |
| 권미경 20,000                  | 김종업 10,000                        | 박정규 10,000                       | 이미숙 10,000             | 이성우 10,000                    | 조명희 20,000      |
| 권오현 50,000                  | 김준기 30,000                        | 박정덕 10,000                       | 이민숙 30,000             | 이성하 30,000                    | 조봉기 10,000      |
| 권정기 10,000                  | 김지영 100,000                       | 박진도 10,000                       | 이봉주 윤도숙 20,000         | 이순영 10,000                    | 조소희 10,000      |
| 권희덕 10,000                  | 김지현 10,000                        | 박종기 10,000                       | 이상희 10,000             | 이승미 30,000                    | 조순덕 50,000      |
| 기세문 30,000                  | 김지호 5,000                         | 박종기 10,000                       | 이성우 10,000             | 이승현 5,000                     | 조용길 10,000      |
| 김경중 10,000                  | 김진우 10,000                        | 박진희 10,000                       | 이승미 10,000             | 이영주 5,000                     | 조진숙 10,000      |
| 김경선 10,000                  | 김진한 10,000                        | 박창원 10,000                       | 이정규 10,000             | 이영진 5,000                     | 조진영 10,000      |
| 김명호 20,000                  | 김창수 5,000                         | 박창원 10,000                       | 이태성 10,000             | 이용준 20,000                    | 조현수 10,000      |
| 김성희 10,000                  | 김창례 30,000                        | 박태동 20,000                       | 이혜경 20,000             | 이용준 15,000                    | 조환근 5,000       |
| 김수진 5,000                   | 김태상 5,000                         | 박현숙 10,000                       | 양원진 10,000             | 이원갑 10,000                    | 지경근 10,000      |
| 김영진 10,000                  | 김태원 10,000                        | 박현희 10,000                       | 양인철 10,000             | 이윤 10,000                     | 진재영 김정석 10,000  |
| 김한상 10,000                  | 김태준 100,000                       | 박형성 5,000                        | 양해용 10,000             | 이윤 20,000                     | 최광운 10,000      |
| 김혜식 10,000                  | 김필상 10,000                        | 박호철 20,000                       | 양호철 20,000             | 이윤섭 이정희 30,000                | 최대식 10,000      |
| 김광선 20,000                  | 김현수 50,000                        | 박희성 10,000                       | 양기준 10,000             | 이은숙 10,000                    | 최범림 10,000      |
| 김광태 10,000                  | 김현숙 10,000                        | 반앤비 20,000                       | 여인경 10,000             | 이자 370                        | 최보경 10,000      |
| 김광태 10,000                  | 김현식 20,000                        | 방성일 10,000                       | 여혜정 10,000             | 이재교(하늘까지) 200,000             | 최영주 20,000      |
| 김광태 20,000                  | 김현애 20,000                        | 배인원 10,000                       | 오경희 10,000             | 이정규 20,000                    | 최옥순 10,000      |
| 김교영 이해옥 20,000              | 김혜순 20,000                        | 배정환 10,000                       | 오순규 10,000             | 이정숙 50,000                    | 최우승 10,000      |
| 김귀옥 10,000                  | 김혜정 5,000                         | 백설애 10,000                       | 오윤숙 5,000              | 이정이 10,000                    | 최은선 20,000      |
| 김기남 10,000                  | 김호현 세미라 200,000                   | 백승호 10,000                       | 오윤석 10,000             | 이정훈 구선옥 40,000                | 최해술 200,000     |
| 김기성 10,000                  | 김희찬 5,000                         | 백창석 5,000                        | 오정우 10,000             | 이지은 이병민 30,000                | 최형식 10,000      |
| 김길자 50,000                  | 김희철 20,000                        | 범민련 100,000                      | 오철근 10,000             | 이창복 10,000                    | 최화섭 10,000      |
| 김난영 10,000                  | 나경훈 10,000                        | 변외성 10,000                       | 유가족(강민조 김봉문김순화) 50,000 | 이창희 10,000                    | 탁무권 50,000      |
| 김덕진 10,000                  | 나명주 10,000                        | 변익숙 20,000                       | 유기수 10,000             | 이춘택 50,000                    | 편상범 20,000      |
| 김동만 10,000                  | 나정옥 20,000                        | 변세현 소수영 30,000                   | 유기진 30,000             | 이현근 김혜순 50,000                | 한도숙(전봉) 100,000 |
| 김래곤 10,000                  | 남택진 10,000                        | 삼성일반노조 50,000                    | 유기진 10,000             | 이현심 10,000                    | 한영선 30,000      |
| 김래곤 20,000                  | 노혁 도은주 30,000                     | 서승중 10,000                       | 유명섭 5,000              | 이현희 10,000                    | 한재경 10,000      |
| 김력균 5,000                   |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50,000                 | 서애숙 10,000                       | 유선근 50,000             | 이호승 10,000                    | 한정숙 5,000       |
| 김명희 10,000                  | 두형진 5,000                         | 서은숙 10,000                       | 유성경 20,000             | 이호중 10,000                    | 한상권 20,000      |
| 김민정 이보균 20,000              | 류정은 15,000                        | 석규관 신경숙 10,000                   | 유승옥 30,000             | 이호철 10,000                    | 한찬옥 마기원 20,000  |
| 김민제 10,000                  | 류제춘 10,000                        | 설상준 10,000                       | 유영호 10,000             | 익명 10,000                     | 황철우 20,000      |
| 김병석 10,000                  | 류종인 10,000                        | 설혜경 10,000                       | 유용대 조계숙 40,000         | 익명 10,000                     | 황해평 5,000       |
| 김병태 50,000                  | 명진스님 50,000                       | 성경화 300,000                      | 유학수 30,000             | 인미화 10,000                    | 허행란 10,000      |
| 김복배 10,000                  | 모아라 두리 세미 <sup>11.12</sup> 60,000 | 성영미 10,000                       | 윤경숙 20,000             | 임기란 30,000                    | 홍명자 10,000      |
| 김부일 10,000                  | 모지희 20,000                        | 소미영 10,000                       | 윤규숙 10,000             | 임봉규 10,000                    | 홍미라 5,000       |
| 김상일 20,000                  | 문지희 20,000                        | 소수영 20,000                       | 윤성근 10,000             | 임현영 50,000                    | 홍성순 30,000      |
| 김선민 10,000                  | 문상봉 10,000                        | 손미아 10,000                       | 윤성남 10,000             | 장경옥 100,000                   | 황건 30,000       |
| 김선생님 100,000                | 문용철 10,000                        | 손일순 20,000                       | 윤영돈 30,000             | 장민호 정화옥 20,000                | 황금주 5,000       |
| 김선영 10,000                  | 문일승 10,000                        | 손일순 배경석 40,000                   | 윤주미 10,000             | 장영현 10,000                    |                 |
| 김선옥 20,000                  | 문홍주 10,000                        | 송록희 10,000                       | 윤현숙 65,000             | 장필소 20,000                    |                 |
| 김성철 10,000                  | 민가현어머니 50,000                     | 송영민 10,000                       | 윤형근 5,000              | 전미라 10,000                    |                 |
| 김세균 20,000                  | 민범식 10,000                        | 송창학 30,000                       | 이강주 10,000             | 전영선 10,000                    |                 |
|                             |                                   | 송창학 주경임 30,000                   |                        | 전형범 20,000                    |                 |

자동이체 하실 분은 아래 은행을 이용해주세요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하나은행 271-810145-91205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 양심수후원

농협 053-01-112692 권오현양심수